

## “연약한 이웃들의 천사가 되어주세요!”

사회선교부, ‘2024 엔젤트리’ 사연 모집 … 11월 22일까지 홈페이지 및 목회지원실 신청

‘2024 엔젤트리’ 사연 신청을 받는다. 올해도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천사가 되어주면 좋겠다. 엔젤트리 사연 접수는 오는 11월 22일(금)까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onnuri.org)나 각 캠퍼스 목회행정실에 신청하면 된다.

엔젤트리 사연 신청서에는 돕고 싶은 이웃의 정확한 주소와 사연, 전하고 싶은 선물과 연락처 등을 꼼꼼하게 기록해야 한다. 신청자 이름, 소속 공동체 및 다락방, 연락처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이웃들에게 전달할 선물은 5만 원 이하(꽃, 음식, 현금 금지)여야 한다.

2024 엔젤트리 사연은 11월 23일(토)부터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로비에 게시할 예정이다. 모든 사연이 연결 때까지 로비에 게시한다. 캠퍼스는 상황에 맞춰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지난해 엔젤트리에는 이웃들의 사연 7,492건이 접수됐다. 한부모 가정에 난방용품, 지적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아버지에게 내복을, 홀몸노인에게 간편식을 선물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며 모든 대상자에게 선물을 전달했다.

엔젤트리는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는 소외된



아이들이 엔젤트리에 천사카드를 걸고 있다.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선물을 전달하는 운동이다. 미국 교회에서 재소자 자녀

들에게 성탄 선물을 준 것에서 유래했다. 온누리교회에서는 2015년부터 매해 겨울 엔젤트

리 운동을 하고 있다. 문의: 02-3215-3434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 남양주온누리교회 창립 20주년

남양주온누리교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했다. 이를 감사하고 기념하는 창립 20주년 감사예배를 11월 3일(주일) 오전 11시 30분 본당에서 드린다. 이재훈 위임목사가 설교한다.

남양주온누리교회에서는 지난 10월 30일(수)부터 11월 1일(금)까지 창립 20주년을 감사하며 부흥집회를 열었다. 박종길 목사(서빙고온누리교회 담당), 강부호 목사(양재온누리교회 담당), 이기복 목사(남양주온누리교회)가 설교했다.

남양주온누리교회는 2004년 11월 7일 국내 다섯 번째 캠퍼스로 창립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다음세대를 키우며, 다문화 가정 및 이주민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교회로 자리잡았다. 올해 7월에는 새로 건축한 예배당에서 입당감사예배를 드렸다.

이기복 목사는 “남양주온누리교회 창립 20주년까지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과 교회, 성도님들께 감사하다”면서 “남양주온누리교회가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기억하고, 특히 차세대와 이주민을 향한 사역의 지경을 넓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 홍하영 기자

### 세대를 넘어 성장하는 교회!

####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OFFC) 개최

온누리교회가 모든 세대가 연합하고, 하나 되는 교회로 도약하는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지난 10월 26일(토)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세대를 넘어 성장하는 교회’를 주제로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이하 OFFC)를 개최했다. 온누리교회 리더십과 성도, 청년 400여 명이 참석했다.

오전에는 세대 갈등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소강의 및 발표회가 이어졌다. 빌 브라운 박사가 ‘청년세대 전도’를 주제로 강의하고, 대학 청년 주제 공모 발표, 공동체 우수사례 공유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오후에는 이재훈 위임목사가 ‘생명력 있는 미래 공동체의 모습’을 주제로 강의하고, 박태성 집사(미래성장위원회)가 ‘데이터 및 설문 분석으로 본 온누리교회의 현황 및 미래’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재훈 위임목사는 “미래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적 교회, 변혁시키는 교회, 가정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면서 “온누리교회가 세대를 뛰어넘어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 되는 선교적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교회의 미래 성장을 위해 교회와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패넬토의도 이어졌다. 당회서기 이인용 장로가 사회를 보고, 이재훈 위임목사, 빌 브라운 박사, 하선희 집사, 민준호 대표가 패넬로 참여했다.

온누리교회 대학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들이 기대하는 미래 공동체’를 주제로 실시한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 공모작 발표 및 시상도 있었다. 1등 이수현 자매(허브대학부), 2등 갈렙청년부 ‘레바논순’, 여호수아청년부 ‘송나라순’ 수상했다<관련기사4-5면>.

/ 홍하영, 박지혜 기자

### 수원온누리교회 예배당 임시 이전

#### 약 3년동안 명지대에서 주일예배

수원온누리교회 재건축을 위해 예배당을 임시 이전했다. 당분간 수원온누리교회 주일예배는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11시 30분 명지대학교(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16)에서 드린다. 성인예배(2~4층)와 성가대(1층)가 60주년 체플관을 사용하고, 차세대 꿈땅(소년부 4층, 유년부 및 초등부 5층), 영어예배(5층), 새가족(5층)은 창조예술관, 차세대 파워웨이브(1층)와 예꿈(영어부, 유아부, 유치부 3층)은 학생복지관을 이용한다. 문의: 031-895-6500

### 창작 뮤지컬 <바울과 나> 첫 선

창작 뮤지컬 <바울과 나>가 11월 2일(토) KT&G 상상마당 대치아트홀에서 첫 선을 보였다. 오는 12월 7일(토)까지 평일 오후 7시 30분, 주말 오후 2시와 6시에 공연한다(월요일 공연 없음).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40% 할인된 가격으로 예매할 수 있다. 관람 날짜, 공연 시간, 좌석 등급, 매수, 예약자 이름을 기록하고 문자메시지로 문의하면 된다<관련기사7면>. 문의: 010-5178-3778

A Bold Witness for Christ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다른 면에서 보면 믿음이 전해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은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전염병이 퍼져 나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았습니다.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잠시 옆에 있기만 해도 바이러스에 전염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믿음에 대한 전염도 비슷합니다. 순간의 만남, 한 번의 대화, 한 문장, 한 단어가 마음속 깊이 역사함으로 믿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전염시키는 사람

그리스도의 증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전염시키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죄수 신분으로 로마의 재판정에서 재판받는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됩니다. 바울을 고소한 유대인들은 그를 가리켜 ‘폭동을 일으키는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정죄했습니다. 분명 거짓입니다. 바울은 폭동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미에서 맞는 말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은 믿음을 전염시키는 전염병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회에 믿음을 전염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회의 사상과 문화에 전염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은 어떤 권력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믿음을 전염시킵니다. 〈사도행전〉 24장에서 26장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세 명의 로마 권력자 앞에서 자신을 변증합니다. 24장 벨릭스 총독 앞에서, 25장 베스도 총독 앞에서, 26장 아그립바 왕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 바울은 전혀 위축됨 없이 자신의 믿음을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도 그랬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을 무고하게 죽일 수도 있었는데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로마 권력자들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의 혁명가로 나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거짓된 질서를 복음으로 회복시키는 증거자로 상대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로마 시민권자에게 수차례 재판을 통해서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것이 당시로 볼 때 매우 높은 수준의 법체계입니다. 그 법 체계도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킵니다.

## 위축되지 않고, 믿음을 전염시키는 증인

당시 산헤드린 공회가 참된 믿음을 억압하고 있었을 때 바울은 위축되거나 두려워

하지 않고 담대히 맞서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로마 교황청에 반기를 들었을 때 종교 개혁을 일으키려고 한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뿐입니다. 비텐베르크는 작은 마을입니다. 아주 작은 시골 마을 한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면죄부 발급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회개해야 한다고 붙였을 뿐입니다. 그 작은 몸부림이 하나님께서 임하신 엄청난 도구가 되어서 개신교가 태어났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성경의 교훈을 재발견했습니다. 때로 사회 권력이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고, 진리를 왜곡할 때는 두려움 없이 맞서서 믿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념들이 가장 먼저 진화론으로 창조를 공격했습니다. 〈창세기〉 1장을 공격한 것입니다. 사회적 성, 젠더 이념은 〈창세기〉 2장을 공격한 것입니다. 가정을 공격한 것입니다. 진화론으로 창조를 공격하고, 젠더 이념으로 가정을 공격함으로써 〈창세기〉 1장과 2장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형, “보시기 좋았더라”고 하신 〈창세기〉 1장과 2장의 질서를 알지 못하면 이 세상은 괜찮은 것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창세기〉 1장과 2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진화론으로 창조를 공격하고, 젠더 이데올로기로 가정을 공격함으로써 하나님 없는 세상,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는 사회, 죄의 개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가 함께 일어나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말씀을 선포하고, 2장의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가정을 지키면서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 책임이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지키고, 거짓된 이념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붕괴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잠잠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함께 힘을 합쳐서 목소리 내지 않으면 듣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에 이 사회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위축되지 않고, 믿음을 전염시키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증거하고, 전염시킨다!

그리스도의 증인은 가장 억울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전염시킵니다. 바울이 가이사라에 후송됐습니다. 바울을 살해하려는 음모를 알고 천부장이 긴급히 그를 가이사라까지 보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야나니아가 바울이 후송된 것을 알고 그 다음 날 몇몇 장로들과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데리고 가이사라까지 쫓아 와 그를 고소합니다. 본연의 임무보다 무고한 이를 고소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

다. 구약 시대 사울을 보는 것 같습니다. 더둘로라는 변호사는 로마법과 언어에 능통해서 총독 앞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에서 유리한 역할을 할 사람으로 고용된 게 틀림없습니다. 날카로운 혀를 고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된 혀입니다.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만 말해 주는 거짓된 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더둘로가 벨릭스 총독에게 인사할 때 얼마나 아부성 발언을 하는지 역겨울 정도입니다.

“바울이 불러 나오자 더둘로가 그 사건을 벨릭스 앞에 고소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각하의 다스림 아래서 오랫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각하의 선견지명은 이 나라에 개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벨릭스 각하, 저희는 언제 어디서나 이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각하께 폐가 되지 않도록 간단히 말씀드리겠으니 각하께서는 관용을 베푸셔서 저희 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2~4절).

아부 그 자체입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벨릭스의 통치는 정반대입니다. 태평성대가 아니라 혼란 그 자체였고,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었습니다. 벨릭스가 물러나게 된 것은 유대인과 헬라인의 끊임없는 적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벨릭스는 시리아 군대를 이용해서 유대인들에게 군사적 보복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투옥됐고, 살해됐고, 재산을 약탈당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로마까지 가서 데모해서 로마가 소환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둘로가 현란한 아부로 총독의 마음을 들뜨게 합니다. 그리고 독이 들어있는 언어로 고소합니다.

“저희가 알아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으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이며 심지어 성전까지 더럽히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붙잡은 것입니다”(5~6절).

세 가지를 고소합니다. 첫째,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로마 정부의 심기를 건드리는 말입니다. 로마의 목표는 평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소요와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을 매우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그 혐의를 씌운 것입니다. 로마 정부는 자신들이 지배하기 이전의 종교들은 모두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도 인정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정복하기 이전 종교들은 허용했지만, 그 이후 생겨나는 종교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한 것입니다. 신흥 종교를 만들고 있다는 혐의를 씌운 것입니다. 첫째나 둘째 모두 로마 정부가 원하지 않고 처벌하게 만드는 죄목입니다. 셋째, ‘성전을 더럽히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교묘한 화술입니다. 증거가 없어서 ‘더럽히려고 했다’는 말로 혐의를 씌운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군가를 통해 믿음을 전염 받았고,  
또 누군가에게 믿음을 전염시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리낄 것 없는 양심으로 믿음을 전염시키는 사람입니다.”

것입니다.

바울이 분명하게 해명합니다.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예루살렘이 올라 간지 12일 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대중들을 선동에서 폭동을 일으킵니까?”라고 해명했습니다. 둘째, 그를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했을 때 “나는 이 사람들 산헤드린 공회원과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 내가 만약 이단이라면 이들도 다 이단이다. 내가 예루살렘에 온 것은 동족들에게 구제금을 전달하려고 온 것뿐이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믿음에 대해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각하게 이것은 시인합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습니다. 또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같은 소망을 두고 있으니 그것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14-15절).

성전을 더럽혔다는 고소에 대해서는 “성전에서 정결의식을 행할 때 어떤 소란도 없었다. 만일 그때 내가 성전을 더럽혔다면 그때 온 아시아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나를 직접 고소했을 것이다. 그들에게 물어보라”고 해명했습니다. 바울의 해명은 명쾌하고 진실합니다. 그의 양심에 조금도 거리낌 없는 해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조금도 거리낄 것이 없는  
양심으로 믿음을 전염시킨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은 조금도 거리낄 것이 없는 양심으로 믿음을 전염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거리낄 것 없는 양심을 지니려고 애쓰고 있습니다”(16절).

신약에 ‘양심’이라는 단어가 32번 나옵니다. 그 중에서 21번을 사도 바울이 사용했습니다. 그는 양심의 사람입니다. 양심은 수천 수만의 증인과 같고, 아무도 두렵게 하지 않는 좋은 친구 역할을 합니다. 마틴 루터가 엄

청난 핍박과 방해에 대항해서 종교 개혁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그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리낄 것 없는 선한 양심을 따라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전기에 이런 고백이 나오니다.

“성경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의 증거가 없고 내가 인용한 성경에 잘못된 것이 없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나의 양심이 허용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 주장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오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아멘.”

성경의 분명한 증거가 있고, 이성의 증거가 있고, 잘못된 것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취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을 합니다.

“오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양심’이라는 헬라어 단어 ‘수네이데시스(συνείδησις)’는 ‘순(함께)이’라는 단어와 ‘오이다(알다)’의 합성어입니다. ‘함께 알다’는 의미입니다. 영어 ‘conscious’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무엇을 함께 아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닫도록 해주는 내적인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양심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게 하고, 우리가 알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인해서 양심이 깨져 버렸습니다. 여전히 양심이 살아있기는 합니다.

어느 아메리칸 인디언 부족에서 양심을 인간의 마음에 있는 삼각형으로 형상화 했습니다. 그래서 나쁜 짓을 할 때마다 마음이 떨리고 불편한 것은 삼각형이 회전하면서 심장 벽을 자꾸 해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뎌져서, 원이 되면 더는 양심이 가동하지 않는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양심은 삼각형으로, 어른들의 양심은 원형으로 표시한다고 합니다. 화인 맞은 양심입니다. 선한 양심이란 한 번도 죄지는 적 없는 양심이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람을 경험하고, 중생한 양심입니다.

선한 양심의 영향력과  
증인된 참된 그리스도인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흠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더욱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히 9:14).

“우리가 죄악 된 양심으로부터 마음을 깨끗이 씻고 맑은 물로 몸을 씻었으므로 확신에 찬 믿음과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히 10:22).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 선한 양심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바울은 조금도 거리낄 것 없는 양심으로 행했기에 그가 만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진정한 메시아임을 증거했습니다. 선한 양심은 반드시 전염을 시킵니다. 벨릭스 총독이 이 영향을 조금이라도 받았다는 증거가 나옵니다. 그가 일단 재판을 연기했기 때문입니다. 또 바울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를 허용하고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해 주고, 아내가 유대인이었는데 아내와 함께 바울을 따로 불러서 “당신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도 했습니다. 그 순간이 바울이 복음을 벨릭스 총독 부부에게 전하는 기회가 됩니다. 바울이 다가를 심판에 대해 설명하자 벨릭스 총독이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미 6년 동안 총독을 하고 있었기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소문을 어느 정도 들었을 것입니다. 아내가 유대인이었기에 더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과 자신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증거했기에 벨릭스 총독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선한 양심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느 기관의 개방 이사로 들어가서 부패한 여러 흐름을 보고 이래서는 안 된다며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다수의 사람이 묵인하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개혁을 해야 하는데 이사들이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이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

습니다. 제가 누군지 알고 싶어서 설교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느헤미야> 강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주 설교 제목이 ‘순결한 지혜가 교활한 음모를 이긴다’였습니다. 그분이 그 설교를 두 번 듣고 두려움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나는 지금 순결한 지혜에 속해 있는가? 교활한 음모에 속해 있는가?’를 생각하며 두려움을 느끼고 마음을 바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옳은 편에 서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주변 분들에게 “옳은 편에 우리가 서야 되겠다”고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돌아서서 그 기관이 올바른 방향으로 개혁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한 양심으로 우리가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벨릭스에게도 그 영향력이 있었지만, 결국 그는 선한 양심을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이르지 못했습니다. 빌라도가 연상됩니다. 빌라도도 세 번씩이나 죄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결국 자신의 위치를 보전하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그에게 익숙해진 비양심적인 모습이 여전히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혹시 자신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그를 여러 번 불렀다고 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바울을 2년이나 감옥에 더 붙잡아 두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선한 양심이 우리를 두드릴 때 마음을 열고,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양심이 더 약해져서 연약한 양심이 되고, 부패한 양심이 되고,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 버립니다.

로마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바울이 보여준 증인된 모습이 참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군가를 통해 믿음을 전염 받았고, 또 누군가에게 믿음을 전염시키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권력과 세상 아래 살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거리낄 것 없는 양심으로 믿음을 전염시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보여준 증인의 모습을 우리도 갖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온누리 미래&amp;가족 축제(OFFC) 주제 강의

## 생명력 있는 미래 공동체의 모습

**〈시편〉 57:7~8, 〈잠언〉 27:17**

세상을 보면 미래에 이끌려 가는 사람이 있고, 미래를 이끌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 이끌려 가는 교회가 있고, 미래를 이끌어 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미래는 언제나 다가오는 것인데 우리가 미래를 이끌어 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미래를 이끌고 나간 다윗의 모습이 적혀 있습니다. 〈시편〉 57편의 고백은 다윗이 동굴에 갇혀있을 때 상황입니다. 1~6절까지는 다윗이 동굴에 갇혀서 절망스러운 고백을 하다가 7절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역사를 보면 교회는 위기를 마주할 때마다 교회다워졌습니다. 위기 가운데 새벽을 깨우고, 미래를 이끌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서 배우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미래를 이끌고 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57장 7~8절 말씀에 근거하면, 비전은 미래에서 현재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비전입니다.

### 사도행전적 교회

미래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기 위한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 교회는 언제나 사도행전적 사명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사도행전적 교회가 미래를 이끌어갑니다. 역사상 모든 교회를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것을 ‘3M Church’라고 이름 붙였는데, ‘Missionary Church’ (선교적 교회), ‘Maintenance Church’ (현상유지적 교회), ‘Musium Church’ (박물관 교회)가 그것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세상 속에 보냄을 받은 선교사로 살고 있다는 의식을 가진 성도가 몇 명인지,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성도가 몇 명인지, 건강한 소그룹으로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어느 한 가지만 미달해도 선교적 교회라 할 수 없고, 미래를 이끌어 가기 어렵습니다. 현상유지적 교회는 몇 명이 모이느냐, 어떤 빌딩이 있느냐, 헌금이 얼마나 모이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인원과 건물, 헌금만 가지고 교회의 미래를 논의하면 미래에 이끌려 갈 가능성이 큼니다. 박물관 교회는 한때 영향력이 있었지만, 이제는 과거의 유물처럼 되어버린 교회입니다. 박물관 교회는 선교, 영혼, 사회에 무관심합니다. 항상 이익을 따집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사도행전적 사명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선교적 교회만이 미래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 변혁시키는 교회

둘째, 끊임없이 변혁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월이 흐를수록 계속 ‘기능(function)’과 ‘형태(form)’를 변형시켜야 합니다. 사역의 기능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기능이 형태를 변혁시키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기능,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교회, 복음, 문화가 조화를 이루며 변혁을 일으켜야 합니다. 한 영역의 기능만 강조하면 근본주의, 자유주의, 인본주의에 물들게 됩니다. 미래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셋째,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가 미래를 이끌어 갑니다. 가정과 교회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움직여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교회와 같은 모습입니다.

교회 같은 가정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피차 복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합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모든 관계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가정의 모습이 세대를 통합하는 교회와 같은 가정의 모습입니다.

가정과 같은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성도 모두 세대와 상관 없이 그리스도 안에 형제자매로서 분쟁 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잠 27:17).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어린 세대와 청년 세대, 차세대가 서로를 날카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대를 뛰어넘어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 되는 공동체, 선교적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그리스도의 문화로 변혁시키는 공동체,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 이재훈 위임목사

온누리 미래&amp;가족 축제(OFFC) 패널토의

## “교회의 미래 성장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사회: 이인용 장로, 패널: 이재훈 위임목사, 빌 브라운 박사, 하선희 집사, 민준호 대표

**Q: 오늘날 사회와 교회에서 세대 갈등이 심각합니다. 세대의 벽이 교회 성장을 가로막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대를 넘어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A: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는 항상 세상의 주류 문화와 반대로 행동했습니다. 그것이 크리스천의 정체성입니다. 인권 개념이 전혀 없던 로마 시대에 교회는 노예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선의를 베풀고, 어린이와 여자들을 하찮게 여겼던 시절에도 버려진 아기를 데려다 키우고, 여성을 교육해 자립을 도우며 인권을 향상했습니다. 항상 기독교인들은 문화와 반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세대 갈등을 부추기고, 다른 세대가 어울릴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OFFC) 등을

통해 세대가 하나 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고무적인 것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시니어 세대와 함께하는 것을 지향하는 점입니다. 교회는 세대 통합을 이루어갈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앞으로도 교회가 세상과 반대로 흘러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반대로 일찍 결혼하고, 아이를 많이 낳고, 노인과 젊은이가 함께 어울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Q: 요즘 차세대들이 교회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진리와 세상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듣는 이야기가 큰 차이가 나서 혼란스러워합니다. 이 문제 극복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A: 물고기는 물속에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물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젖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차세대가 그렇습니다. 세상 문화에 흠뻑 젖어 살고 있습니다. 차세대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일주

일에 한두 번 오는 교회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와 문화의 영향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을 교육하는 학교와 가정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교육하지 않으면 사회의 영향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학교나 학원보다 부모와 보내는 시간을 즐겁게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신앙교육이 이뤄져야 합니다. 교회는 신앙교육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크리스천 교사들이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차세대를 붙잡아야 합니다. 차세대 교육은 교회와 가정, 학교가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Q: 교회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는 믿음의 전승 아닌가 싶습니다. 믿음의 전승을 위해 성인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A: 요즘 청년들, 젊은 부부들이 성인 공동체에 소속하기를 꺼리는 이유는 자신을 솔직하

게 드러낼 공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자신의 고민과 비전함, 실패 경험, 일상의 어려움 등을 나누고 싶은데 모임에 가 보면 성공한 이야기만 넘쳐납니다. 진짜 솔직한 경험을 나누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성공한 이야기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경험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청년들은 상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실패 이야기를 들려줄 공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실패자들을 만나게 해주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순예배에서 다양한 세대가 모여 각자의 어려움, 불안함, 실패 경험 등을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조언하고, 보듬어 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위로가 있는 공동체가 될 때 청년들이 성인 공동체에 스며들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마음이 열렸을 때 믿음의 전승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빌 브라운  
박사 강의  
자료

온누리 미래&amp;가족 축제(OFFC)\_청년 아이디어 공모전

## ‘청년들이 기대하는 미래 공동체’

우승(이수현 자매)  
‘함께 [네모] 하다’

지난해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이하 OFFC)에 참가해서 귀한 상을 받았는데, 올해 또 과분한 결과를 얻어 감사하다. 두 해 연속 OFFC에 참가하면서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를 추구하는 온누리교회의 행보에 감사했다. 올해 공동체 생활을 깊게 하면서 ‘건강한 공동체가 무엇일까?’를 고민했다. 교회에서 다락방과 순 생활을 하면서 공동체를 배우고, 올해 4월부터는 주거 공동체에서 생활하며 ‘공동체란 무엇인가’를 삶으로 경험하는 귀한 기회가 있었다.

이번 OFFC 청년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세대 간의 격차’에 대해 다뤘다. 온누리교회는 세대별로 공동체가 잘 이루어져 있는데,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기회는 적다고 생각했다. 특히 청년들이 신앙의 선배들을 만날 기회가 적었다. 타지에 살아서 부모님과 신앙 이야기를 나누기가 쉽지 않았고, 친구들을 봐도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 이야기 나누고, 조언을 구할 기회가 별로 없었다. 내 경험과 고민을 바탕으로 ‘각 세대가 함께 모이면 시너지가 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전제로 ‘함께 [네모]

하다’(함께 배우다, 나누다, 만나다, 즐기다)를 주제로 발표를 했다. 단순히 공모전을 넘어서 내가 느낀 것을 나누고, 어떤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지를 공유하고 싶었다.

첫째, ‘함께 배우다’에서는 모든 세대가 모여 하나님을 배우고, 나눔을 하는 ‘바이블 아카데미’와 다양한 세대가 모이는 ‘부부교실’을 제안했다. 날이 갈수록 신앙적으로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크리스천 신혼부부, 육아하는 젊은 부부들이 하나님과 함께 그 과정을 헤쳐나간 선배 부부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둘째, ‘함께 나누다’에서는 각자 가진 다양한 재능과 자원을 나누는 시간을 제안했다. 만능 살림꾼 강남A공동체 김영자 권사님은 ‘자취생들을 위한 단돈 3만 원으로 일주일 반찬 똑딱’ 클래스를 열 수 있고,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다루는 허브공동체 이수현 자매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3시간 안에 스마트폰 마스터하기’ 교실을 열 수 있다. 이처럼 각 세대가 서로의 재능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 선순환이



일어날 것을 기대한다.

셋째, ‘함께 만나다’에서는 공동의 목표의식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시간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모든 세대가 함께 서로의 자원과 장점을 활용해서 사회선교를 하고, 노방전도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육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나 실무에서 활동하는 성도들이 모여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 교실 등의 사회선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함께 봉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면서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더욱 풍성하고 다채로운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함께 즐기다’에서는 ‘모든 세대가 하나 되는 운동회’를 제안했다. 모든 세대가 부서별로 팀을 꾸려 함께 땀 흘리고, 배려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공동체에 활기와 생기를 불

어넣고, 세대 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다.

교회는 다양한 세대가 만나 함께 이야기하고, 삶을 나누는 장(場)을 마련해줘야 한다. 모든 세대가 대화하고, 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배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더 건강하고 풍성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세상에서는 세대 간 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다. 세대 갈등을 빚으면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이런 때일수록 교회는 모든 세대가 하나 되는 일에 더욱 힘을 써야 한다.

세대가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이수현 자매(허브대학부)



발표자료

준우승(여호수아청년부 송나라순)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온누리교회’

송나라 자매  
(여호수아청년부)

청년부 소속 연차가 늘어나고, 나이가 들면서 성인공동체로 이동을 고민하는 청년들이 많아지는 것을 실감한다. 간혹 진행하는 성인공동체와의 ODO(One Day Outreach), 연합 아웃리치 등에 참여하면서 세대 간 격차를 진지하게 고민한 적이 있다. OFFC 공모전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수원들(송나라, 김지영, 정연웅, 이영호, 유의성, 박해리)과 함께 참가했다. 우리 팀은 세대 간 격차 원인이 소통 방식과 공감대 부재에 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교회에서 세대 연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교회에서 세대 간 연합을 이루는 방법으로 ‘모든 세대 연합예배’와 ‘연합 ODO’, ‘연합 아웃리치’ 확대를 제시했다.

현재 양재온누리교회 수요예배에서 드리는 ‘전 세대 연합예배’에서 더 나아가기를 희망한다. 주일예배를 연합으로 드리거나 청년과 차세대 연합예배를 구성하면 다양한 세대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며 연합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이미 성인공동체와 청년공동체가 함께 ODO를 하고 있는데, 더 다양한 세대가 참여하면 모든 세대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청년부에서 성인공동체로 이동하거나 대학부에서 청년부로 이동하며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서도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각 부서별 나이제한 두기’다. 명확한 나이 제한을 설정해서 해당 나이 이후로는 자연스럽게 이동하기 위함이다. 둘째, ‘기수제 운영하기’다. 성도들을 연령대별 기수로 묶어서 공동체를 함께 이동하도록 하면 적응도 쉽고, 마음도 편해질 거라 기대한다. 셋째, ‘브릿지 공동체 운영하기’다. 대학부에서 청년부로, 청년부에서 성인공동체로 이동하는 성도들이 처음 1년 동안 브릿지 공동체에서 적응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적응한 다음 순과 공동체로 이동하는 것이다. 공감대 형성을 위해 대학부에서 청년부로 올라온 청년들, 청년부에서 성인공동체로 올라온 청년들이 브릿지 공동체 리더십으로 섬길 것을 제안했다.

〈사도행전〉2장 17절 말씀처럼, 모든 세대가 어우러져 건강한 신앙 생활하는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발표자료

준우승 갈렙청년부 레바논순  
‘세대를 넘어 성장하는 공동체’

임채민 형제  
(갈렙청년부)

온누리교회에서 세대 격차 해결을 위한 ‘OFFC’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듣고 반가웠다. 그 반가운 소식을 듣고 갈렙공동체 ‘레바논순’(김효진, 이송, 문국천, 유은예, 임채민, 이새롬, 김형주)에서 아이디어를 모으고, 공모전에 참가했다. 순원들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느낀 점이 있다. 성인공동체만큼이나 청년들도 세대 간 격차를 줄이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다.

청년 아이디어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단기성으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세 가지 그리고 문화와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두 가지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단기성 아이디어는 첫째 ‘청년공동체와 성인공동체가 함께 ODO(One Day Outreach) 참여하기’다. 농어촌 봉사나 리브소나타 등에서 연합사역을 체험하는 것이다. 둘째, ‘성인과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자리 마련하기’다. 성인공동체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오픈 순예배’ 등을 드리면서 성인공동체를 접할 기회

를 주는 것이다. 성인공동체로 이동하기를 주저하는 청년들이 자신이 속할 공동체와 순을 미리 경험하도록 돕는 것이다. 셋째, ‘성인과 청년들이 함께 일대일제자양육 훈련하기’다. 청년들은 보통 일대일제자양육을 공동체 멘토님이나 목사님들에게 받는데, 이것을 성인공동체와 연결하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다른 세대가 만나 교류할 수 있다.

문화와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아이디어는 첫째, ‘공동체 생활 7년 되면 공동체를 옮기는 문화 만들기’다. 한 공동체에서 7년을 섬기면 규모가 작은 청년공동체나 성인공동체로 옮겨서 사역하는 것이다. 공동체 풀림 현상을 극복할 수 있고, 세대가 자연스럽게 섞이는 장(場)이 될 것이다. 둘째, ‘청년 공동체 세분화하기’다. 현재 청년부에는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한 세대가 섞여 있다. 이들을 나이에 별로 나눠 공동체를 형성하면 성인공동체로 이동이 더욱 수월해질 것이다.

교회에서 청년들과 성인들이 만나서 교제하는 자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사역에 쫓겨 소속 공동체에만 시선이 머물 수밖에 없는데, 세대와 상관없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동역자들이 세워지기를 바란다.



발표자료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 - 하나님의 절대 주권

##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

예전에 청년부 시절 알았던 부부가 네 자녀와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캄보디아로 선교사역을 떠났다. 언어 과정과 문화훈련을 마치고 첫 사역지로 이동하는 중에 마주 오는 버스와 정면충돌하는 대형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부부와 둘째, 셋째 아이가 첫째와 막내를 남겨두고 천국으로 부름을 받았다. 나머지 두 아이도 다쳤는데 첫째는 가슴이 무너지게도 한쪽 팔을 잃었다.

“에서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크게 울부짖고 슬퍼하면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내 아버지여! 제게도 축복해 주십시오.’”(창 27:34).

장자로서 당연한 축복을 기대했던 에서는 속임수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을 죽이고자 했다(창 27:41). 이는 야곱에 대한 분노와 축복받지 못할 자신의 암울한 미래로 인해 크게 낙담했기 때문이라. 그 이후 20여 년 세월이 흘러 에서가 자기 앞에 한껏 주눅 든 야곱을 맞는다. “민족들이 너를 섬기고 나라들이 네게 절할 것이다. 너는 네 형제들의 주인이 될 것이며”(창 27:29)라는 축복을 받고 도주한 야곱이 지난 세월 얻은 것은 두 아내와 여종, 자녀들, 노비와 소와 나귀와 양 떼들이었다. 반면 대성통곡하며 축복을 간절했던 에서는 장정 4백 명을 거느리는 막강한 군사력과 풍요로운 재물(창 33:9)을 소유하고 있었다. 축복의 당당함으로 나타날 거라는 예

상과 달리 여종과 자식들을 앞세워 나오는 동생을 보면서 에서는 야곱을 향한 아버지의 넘치는 축복(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절할 것이다(창 27:29))이 어떻게 이해되었을까?

필자는 2014년 10월 중순 어느 날 독일 ‘스프링거-네이처’ 출판사로부터 뜻밖의 이메일 한 통을 받았다. 오랜 기간 함께 연구해 온 일본 나고야대학교 교수인 필자의 친구가 에너지 소비를 혁신적으로 줄이는 조명과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빛을 내는 반도체 소자’ 개발로 노벨물리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었다. 편집장이 친절하게 이 소식을 내게 전해준 이유는 바로 1년 전인 2013년 이 출판사를 통해 그 친구와 함께 ‘빛을 내는 반도체소자 개발’ 관련 책을 출간했기 때문이었다(친구는 고성능 반도체 재료 원천기술 개발 연구를 하고, 필자는 이를 기반으로 만든 소자의 성능 향상을 연구한다). 마치 내가 수상자가 된 것 같은 놀라운 기쁨을 접하고 바로 친구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20여 년 지기의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온 날들을 생각하고, 그 친구 소속 대학교의 객원교수 연구실 벽에 걸린 ‘과학인 달력’에 소개된 25명의 일본인 노벨상 수상자들을 보면서 문득 영화 ‘아마테우스’가 떠올랐다. 이 영화는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의 삶을 그렸다. 궁중악단 단장이었던 살리에르는 그의 재능으로 모차르트의 능력을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

으므로 인해 좌절한다. 그는 자신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차르트에게 그런 능력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다. 믿는 자들에게 다섯 달란트를 허락하셔서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면 그 얼마나 감격스럽고 멋진 일일까! 그러나 그런 일은 없다. 그릇의 용도 결정은 전적으로 토기장이의 권한이라고 하신다(롬 9:20-21).

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주관하신 세상이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다. 악인이 장수하고, 형통한 삶을 사는 것(욥 21:7, 전 7:15, 시 73:3, 잠 24:9)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하지 않은 것 같아 마음이 어렵다. 온전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온 욥은 왜 고난을 겪는지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셨다. 대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묻는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나서라. 내가 네게 물을 테니 내게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아는 게 있으면 말해 보아라”(욥 38:3-4).

만약 하나님이 세상의 복잡한 인과관계에서 그의 고난을 설명하셨다면 욥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었을까? 복음주의 작가 필립 안시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것은 마치 바닷가의 대합조개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이해해야 하는 상

황과 같다고 비유했다. 기독교 변증가이자 영국 옥스퍼드와 캠브리지대학교 교수였던 C.S. 루이스는 천국에 가면 “아하! 아하!”하는 소리가 도처에서 들릴 거라고 했다. 이는 창조주 하나님을 직접 뵈게 되면 고만하고 씨름했던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우리가 겪는 많은 일의 원인이 지금은 전혀 보이지 않겠지만, 하나님을 뵈는 날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분명해질 것이라고 하신다(고전 13:12).

부모와 형제를 잃고, 신체적 장애를 입은 아이를 생각하면 숨이 막히는 듯하다.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사건으로 인해서 답답하고, 낙심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직접 뵈는 그 날 안개가 걷히듯 분명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말씀(고전 15:58)에 순종하고자 한다. 하나님은 절대 선하시며(시34:8),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은 언제나 완전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에 집중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성령님의 도움을 구한다.



성태연 목사  
(서초C공동체, 온누리  
세계관학교)

### 특별기고

## 종교 자유의 현황

10월 27일은 ‘국제 종교 자유의 날’이다. 1998년 이날, 당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국제종교자유법’에 서명했다. 지금이야 기념일로 되었지만, 종교의 자유와 관련해서 놀랄 만큼 많은 역사가 깃든 날이다.

서기 312년 이날,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전투를 위해 행군하던 중에 십자가 환상을 보고 기독교로 개종했고, 결국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합법화한 밀라노 칙령을 발표했다. 1553년 미카엘 세르베투스가 이단으로 몰려 제네바 외곽에서 화형을 당한 것도 이날이었다. 2018년 10월 27일에는 피츠버그의 트리 오브 라이프 유대교 회당에서 총격범이 총기를 난사해 1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쳤다.

오늘날 종교의 자유는 세계인권선언,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및 기타 국제 문서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는 불안정한 상황에 있고, 끊임없이 위협을 받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반유대주의가 충격적으로 증가한 것은 명백한 예가 되지만, 다른 잔혹 행위도 많이 있었다. 2014년 ISIS는 야지디족을 대량 학살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2017년에는 로힝야족 무슬림들이 집단 학살을 당했고, 많은 사람이 방글라데

시로 피난을 갔다. 최근 방글라데시에서는 무슬림들이 힌두교 공동체를 공격해 집을 불태우고 이웃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했다. 중국에서는 위구르 무슬림과 파룬궁 수련생들이 심각한 박해에 직면해 있다. 비극적으로 그 목록은 끝이 없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박해받는 종교가 기독교이다. 미국 ‘오픈 도어즈’에 따르면,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인 7명 중 1명꼴인 3억6천5백만 명이 이상이 높은 수준의 박해를 받고 있다. 아프리카의 기독교인 5명 중 1명, 아시아 5명 중 2명이 박해를 받고 있다. 상황은 점점 악화하고 있다. 2023년 순교한 기독교인이 4,998명이다. 하루 평균 13명 이상이 순교했다. 사망자 82%가 나이지리아 무슬림 풀라니 유목민, 보코하람 또는 ISIS 연계된 조직에 의해 살해당했다. 같은 해 2천9백5천 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전쟁이나 극단주의로 인해 고향을 떠났는데, 이는 2022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4천 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수감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전년 대비 6배 증가한 1만4천 개 이상의 교회 건물이 공격받았다. 여기에는 중국의 교회 폐쇄, 인도 폭도들의 폭력 행위, 나이지리아, 니카라과, 에

티오피아의 교회에 대한 공격이 포함된다. 프랑스, 미국, 특히 캐나다를 포함한 서방 국가에서도 교회에 대한 공격이 많이 발생했고, 최소 196개 교회가 표적이 돼 불탔다. 이슬람 세계, 특히 근본주의 이슬람 국가에서는 기독교인 및 기타 소수 종교가 계속 차별을 받고 있다. 파키스탄 같은 국가에서는 신성모독죄가 기독교인을 표적으로 삼는데, 신성모독죄로 고발하면 군중이 행동에 나설 수 있고, 증거가 거의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국가로 여겨지는 인도에서는 힌두 민족당이 신앙을 전파하는 기독교인을 범죄로 처벌하는 개종금지법을 추진했다. 작년에 인도의 두 주에서 반기독교 폭력 사태가 광범위하게 발생해 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집에서 쫓겨났으며, 많은 교회가 불에 탔다.

그 반대 주장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지지가 감소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종교의 자유를 지지하는 판결이 거듭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동성 결혼’을 축하하거나 낙태를 허용하고, ‘성별 확인 치료’를 지지하라는 비난과 소송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대중의

지지와 이에 대한 대중의 이해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대법원에서 이기는 사람들은 하급심에서 수많은 패소, 재정적 손실 및 명예훼손, 다른 양심적인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등 일종의 형벌 같은 과정을 견뎌내야 한다(물론 대법원에 대한 압박은 반대의 권리를 약화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것이 바로 국제 종교 자유의 날이 중요한 이유다. 우리의 근본적인 신념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자유는 기독교가 세상에 준 좋은 선물이다. 이 자유가 전 세계적으로 침해되고 있는 시대에 이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고, 가장 큰 위협에 처해 있는 신앙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 이 자유를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종교의 자유가 왜 중요한지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잠시 시간을 내 필박받는 사람들, 특히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인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바란다.

/ 존 스톤스트리트(척 콜슨 기독교세계관 센터 대표, 브레이크포인트 진행), 글렌 선사인(前 센트럴 코네티컷 주립대학교 역사학 교수)

원문: breakpoint(20241025)

성경적 부모를 위한 ‘부모 면허’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눈길



박인경 사모  
(한국심리상담연구소)

많은 사람과 상담하면서 ‘한 사람에 그 부모가 끼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녀가 어렸을 때 부모에게 받은 영향력으로 생을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부모의 역할을 가르쳐주는 장면이 극히 드물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부모가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채 자녀를 낳고 기른다.

크리스천 부모들은 세상의 부모보다 전략적이어야 한다. 철저한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의해야 한다.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 찾고 공부해야 한다는 의미다. 나는 이것을 ‘부모 면허’라고 이름 붙였다. 부모의 변화는 가정과 자녀의 변화를 이끌어낸다. 부모 면허를 잘 획득한 부모들이 행복한 가정, 건강한 자녀를 키운다.

부모 면허를 따기 위한 첫걸음은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눈길’이다. ‘바라봄’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이들은 자신을 바라보는 부모의 눈길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아차리기 때문이다. 부모가 아이들을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고, 환하게 웃어주고, 알맞은 보살핌을 제공할 때 아이들은 ‘나는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구나!’라고 정의한다. 반대로 아이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표정이 딱딱하고, 말을 걸어주지 않고, 제대로 된 보살핌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나는 부모님을 웃게 해줄 수 없는 사람이야’라고 자신을 정의한다. 아주 어릴 때부터 자녀들은 부모가 바라보는 눈길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의한다.

자녀를 따뜻하고 안정적인 눈길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먼저 부모와 학부모의 역할 관계를 살펴야 한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가 유치원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부터 자신을 ‘학부모’라 인식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학부모 역할은 부모의 역할 중에서 지극히 작은 부분에 해당할 뿐이다. 학부모가 존재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다양한 부모의 역할을 균형 있게 잘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부모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부모를 어떻게 바라보고, 부모에게 어떤 기대가 있는지 살펴보자. 부모는 하나님과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보여주는 사람이다. 아이들의 참부모는 하나님이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잠시 맡아 보살피는 양부모요, 위탁부모다. 만약 부모가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 이 땅에서 성공시키는 것을 자녀 교육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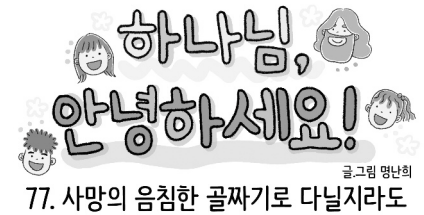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예레미야〉 1장 5절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우리 자녀들은 모태에서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고, 태어나기도 전에 거룩하게 구별된 이들이다. 자녀들은 부모에 의해 태어나지만, 엄마 뱃속에서 자라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명자들이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를 ‘하나

님의 사명자’로 바라봐야 한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사명을 이룰 힘도 허락하셨다. 그 힘은 자녀들이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아직 잘하지는 못하지만 잘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아이의 관심과 열정이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주신 사명 도구다.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자라나도록 하나님의 눈으로 관찰하고, 자녀의 장점을 알아차려야 한다.

자녀의 장점을 알아차리고 발견하기 위해서는 자녀 곁에 머물러야 한다. 자녀에게는 머물러 주는 부모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신을 ‘학부모’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아이의 학업과 성적을 위해 학교와 학원에 보내기만 한다. 아이 곁에 머무르지 않는다. 머무른다는 것은 자녀가 기뻐하면 그 옆에서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다. 아이가 슬퍼하면 그 아이와 함께 그 마음을 느끼면서 곁에 있어 주는 것이다. 아이 곁에 머물러 주는 일 역시 부모 역할이다.

부모 역할은 하나님과 말씀을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이 자녀 교육의 출발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하나님이 자녀에게 맡기신 사명을 찾아주며, 자녀가 그 사명을 이루도록 그 곁에서 머무르며 도와주는 부모들이 되기를 축복한다.

\* 이 글은 기독교 OTT ‘풍당’ 프로그램 ‘박인경 사모의 부모 면허 1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눈길’을 요약 및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강의는 기독교 OTT ‘풍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 QUIZ

출제범위: 〈예수님이 좋아요〉 10월 29일 본문 ‘갈 5:16~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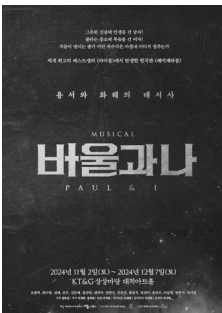
1.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힘써야 해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읽고 빈칸을 채워보세요.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 )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 )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 )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 )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없게 합니다(중략)”(갈 5:16~17).

2.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아닌 것을 골라보세요.  
① 온유 ② 친절 ③ 사랑 ④ 지혜 ⑤ 절제

\* 정답과 함께 이름, 소속, 연락처를 적어서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가족과 함께 관람하면 좋은 공연 - 기독교 창작 뮤지컬 ‘바울과 나’

핍박자가 사도로, 증오가 사랑과 화해로!



친구들 사도 바울을 알고 있나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다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변화된 사람이예요.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신학자이기도 해요. 이 멋진 바울을 만나는 뮤지컬이 있어서 추천해요! 기독교 창작 뮤지컬 〈바울과 나〉예요.

기독교 창작 뮤지컬 〈바울과 나〉는 바울의 실제 이야기를 기반으로 하되 작가의 상상력으로 만든 가상 인물 ‘아니스타’가 등장해요. 바울의 삶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바울에게 복수하려는 아니스타의 증오가 사랑과 화해로 변화되는 여정을 그렸어요. 로마의 전쟁포로, 황제에게 바칠 제물로 끌

려가던 이방인 아니스타가 ‘스테반’에 의해 극적으로 구출돼요. 스테반과 스테반의 엄마 ‘크리스티나’와 함께 살게 된 아니스타가 스테반과 사랑에 빠져요. 그런데 ‘사울(바울의 변화 이전 이름)’을 비롯한 유대인 무리에게 스테반이 죽어요. 사랑하는 스테반이 죽는 현장을 목격한 아니스타는 깊은 슬픔에 빠져요.

한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울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빛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두 눈이 멀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회개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었어요. 바울이 아니스타를 찾아가 용서를 빌어요. 크리스티나는 바울을 용서하자고 했지만, 아니스타는 그럴 수 없었어요. 그래서 크게 화를 내며 집을 나가버려요. 바울은 전도 여행을 계속했는데 대제사장과 제사장 무리가 복음이 전파되지 않도록 그를 죽이려고 암살단을 만들어요. 과연 바울과 아니스타는 어떻게 될까요?

기독교 창작 뮤지컬 〈바울과 나〉는 SBS 특별기획 미니시리즈 〈아름다운 그녀〉 등을 쓴 김효선 작가가 집필하고, 뮤지컬 〈신과 함께 가라〉 등을 창작한 이석준이 연출했어요. 최고의 대본과 연출, 멋지고 실력 있는 뮤지컬 배우들이 공연하는 기독교 창작 뮤지컬 〈바울과 나〉가 궁금하지 않나요? 기독교 창작 뮤지컬 〈바울과 나〉는 12월 7일까지 KT&G 상상마당 대치아트홀에서 막 올라요. 평일 오후 7시 30분(월요일 공연 없음), 주말 오후 2시와 6시에 공연해요. 티켓은 R석 7만 원, VIP석 9만 원으로 인터파크티켓에서 예매할 수 있어요.

기독교 창작 뮤지컬 〈바울과 나〉 공연 감상문 대회도 열려요. 12월 10일(화)까지 A4 한 장 분량의 감상문(글자 크기 10pt)을 이메일(wisdom7@onnuri.org)로 보내면 돼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준대요. 부모님과 함께 꼭 참가해 보세요! / 박지혜 기자

장로합창단  
타이페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

합창(合唱), 여러 사람이 목소리 맞춰 노래를 부름. 또는 그 노래를 말한다. 장로들의 합창은 조금 더 특별하다. 장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목소리 맞춰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리기 때문이다. 그 아름다운 찬양이 타이페이 현지 교회에서, 길거리에서, CGN 중문지사에서 울려 퍼졌다. 어떤 이는 그 찬양 소리에 발길을 멈추고 감격했고, 어떤 이들은 큰 위로를 받았다. 버스킹 찬양은 예수님을 모르던 누군가를 그분의 품으로 안내했다.

온누리교회 장로합창단이 창단 12주년을 맞아 지난 10월 18(금)부터 21일(월)까지 타이페이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장로합창단원들과 권사, 스태프 등 103명이 참석했다. 아웃리치 준비과정부터 기대감이 가득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아주 작은 것까지도 기도하며 함께 준비했다. 장로합창단의 합창을 통해서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새 힘을,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회복을,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전도의 열매를 소망하며 8개월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찬양 연습과 중보기도를 거듭할수록 빨리 가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격려하고, 위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열정이 샘 솟았다.

장로합창단 타이페이 아웃리치에서는 화이은교회 예배 특순, 버스킹 찬양(2회), CGN



온누리교회 장로합창단이 창단 12주년을 맞아 10월 18(금)부터 21일(월)까지 타이페이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중문지사 방문 찬양 등을 했다. 첫 일정은 화이은교회 방문이었다. 주일예배 특순을 섬기며 합창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상상했다. 합창곡으로 ‘참 아름다워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를 하고, 그동안 연습한 현지어로 ‘축복의 통로’를 현지 성도들과 함께 불렀다. 화이은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감동해서 눈빛을 반짝였고, 나중에는 눈시울 붉히며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다.

다음 행선지는 중정기념당 자유광장이었다.

이곳에서는 버스킹 찬양을 했다. 사실 길거리에서 그것도 타국에서 적지 않은 인원이 모여 찬양을 합창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확신이 들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그 자체가 기뻐했다. 이 근거 있는 자신감은 분명 성령님이 부여하시는 힘이였다. 그래서 더 열정적으로, 더 큰 기쁨과 감동으로 찬양할 수 있었다. 권사님들도 가만있지 않았다. 현지어로 된 전도지를 나눠주며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다. 비가 오는 곳은 날씨였지만 상관없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한 일을 조금도 방해하지 못했다.

두 번째 버스킹 찬양 장소로 이동했다. 타이페이 101빌딩이 보이는 시민공원이었다. 그런데 첫 번째 버스킹 찬양을 할 때보다 빗줄기가 거세졌다. 그럼에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었다. 이미 찬양하는 기쁨과 감격, 예수님 전하는 감동에 흠뻑 젖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동근 원을 그리고 버스킹 찬양을 시작했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비가 그쳤다. 하나님이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의 수고를 아시고,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는 것 같았다. 그 큰 은혜에 감격해서 더 기쁘게, 더 힘차게, 더 행복하게 찬양했다.

장로합창단 타이페이 아웃리치 마지막 행선지는 CGN 중문지사였다. 직원들과 함께 예배와 찬양하고 중보기도했다. 장로합창단 타이페이 아웃리치는 동역자들과 함께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해 격려와 위로를 선물하고, CGN 중문지사의 미디어 복음전파 사명 완수를 위한 중보기도로 마무리했다. 그 아름다운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한 장로합창단 단원들, 권사님들, 그곳에서 만난 모든 이들을 축복한다.

유형 장로  
(장로합창단 단장)인도네시아 CGN  
창립 10주년을 보내며

2014년 9월 18일, ‘러브 인도네시아 콘서트’를 통해 인도네시아 CGN의 사역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인도네시아 현지인들과 한인들이 하나 되어서 준비한 러브 인도네시아 콘서트에 1천 5백 명이 참석했고, 출연진들도 다양해서 인도네시아 CGN의 첫 출발에 매우 큰 힘이 되었다.

사실 인도네시아 CGN은 그 이전부터 조금씩 준비되고 있었다. 온누리교회 아웃리치팀과 CGN 직원 아웃리치팀이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찾아가 위성 안테나를 설치해 드렸다. 대부분 선교사님이 CGN 위성 안테나를 통해 전해지는 다양한 콘텐츠를 시청하면서 사역에 큰 도움을 받았다. 또 많은 한인 교회에 CGN 직원들이 아웃리치를 가서 위성 안테나 설치하면서 인도네시아 CGN에 대한 기대감이 심어지기 시작했다.

인도네시아는 1만8천 개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이다. 320개 종족, 719개 언어를 가진 다양성 속에서 하나를 이루며 사는 나라이다. 인구가 2억 8천만 명으로 세계 4위 인구 대국이다. 그중에서 87%가 무슬림이다. 10% 정도의 크리스천들이 함께 살고 있다. 인도네시아 CGN은 무슬림이 대다수인 나라에서 어떻게 미디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 현지 교회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인도네시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았다. 그때 한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CGN은 지난 10년간 인도네시아에서 미디어를 통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들었다.

“선교는 우리가 하고 싶은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 꼭 필요한 것을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현지에 꼭 필요한 것은 영적 콘텐츠였다. 그것을 그들 스스로 제작할 수 있게 하려면 미디어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2014년부터 약 5년 동안 수마트라섬에서 파푸아섬까지 다양한 지역을 다니면서 여러 현지교회 사역자들과 네트워크를 만들기 시작했다. 현지에 가장 필요한 콘텐츠

를 찾고 제작하는 일도 병행했다. 2019년부터 최근까지 인도네시아 어린이들을 위한 ‘즐거운 주일학교’, 청소년들을 위한 ‘갯툰(인도네시아어 더빙)’, 모든 성도가 함께 성경을 읽고 듣는 ‘인도네시아어 공동체 성경읽기’ 프로그램 제작했다. 맞춤형 콘텐츠가 현지교회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과 더불어 지난 10년 동안 미디어 아카데미를 열고 미디어 사역자를 양성하는 사역도 계속했다. 그 덕분에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많은 현지교회들이 CGN 미디어

아카데미에서 배운 기술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을 구축했다.

현지교회를 위한 맞춤 콘텐츠 제작과 미디어 교육을 활용해서 인도네시아 CGN이 향후 10년 비전을 준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주요 12개 지역에 제작센터를 설립하고, 그들 스스로 종족 문화와 언어에 맞는 콘텐츠를 재생산하고 보급하는 사역이 바로 그것이다. 이 사역에 수마트라섬에 있는 HKI 교단과 스파르 신학교가 먼저 헌신했다. 미디어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HKI 교단과 스파르 신학교에서 파송한 5명의 인턴이 자카르타 CGN에서 훈련받고 있다. 그들이 1년 동안 미디어 사역자 훈련을 받고, 현지로 재파송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CGN은 현지 맞춤형 콘텐츠 제작과 미디어 사역자 양성을 통해 현지교회 스스로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보급하기를 소망하고 있다. 미디어를 통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자들이 인도네시아를 넘어 땅끝까지 파송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와 후원으로 동역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께 감사하다.

후원문의:

02-796-2243

윤영준 실장  
(인도네시아 CGN)

## 맞춤 콘텐츠 제작과 미디어 교육

## 맛있는 말씀 해설

## “...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욥 42:5)

〈욥기〉42장 5절은 욥이 자신의 고난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말이다. 이전까지 욥은 자신이 겪는 고난에 대해 하나님께 항의하고 해답을 요구했지만, 5절에서는 자신의 모든 불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히 받아들인다. 욥의 이와 같은 전환은 많은 성도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욥은 그동안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며, 자신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하나님께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욥기〉42장 5절에서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지 않고, 겸허하게 하나님을 마주하는 태도를 보인다. 성도들이 이 변화를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욥이 기대했던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욥은 왜 자신이 고난을 겪는지에 대한 이유를 듣기 원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시고 대신 창조주로서의 주권을 강조하셨다(욥 38~41장).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반응은 성도들이 예상했던 것과 다를 수 있으며, 그렇기에 욥의 태도 변화가 혼란스럽

게 느껴질 수 있는 이유이다.

〈욥기〉42장 5절에서 ‘귀로 듣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은 단순한 감각의 차이를 넘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깊이를 상징한다. 이전에 욥은 단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그분을 알고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고난을 겪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주권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된다. 이 깨달음은 단순한 지식적 이해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서 비롯된 신앙적 통찰이다. 비록 욥이 자신이 겪은 고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했지만, 그는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이심을 깨닫게 된다. 이는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실제적 경험을 통해 얻게 된 믿음이다. 욥은 이제 더 이상 고난의 이유를 묻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인정하며 그분의 주권을 받아들인다.

〈욥기〉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이 구절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중요한 교훈을 준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머무르지 말고, 삶을 통해 그분을 직접 경험해야 한다. 욥처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신앙이 깊어져야 한다.

둘째, 고난의 이유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며, 고난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신다.

셋째, 욥의 변화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함을 강조한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겸손한 신앙이 필요하다.

〈욥기〉는 ‘하나님의 자유’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인간은 자신의 고통에 대한 이유와 원인을 하나님께 감히 물을 수 없는 존재임을 욥의 이야기를 통해 깨닫게 된다. 욥은 고통의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절대자이시며 그분의 뜻을 우리가 모두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성숙한 신앙인은 비록 고난의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

워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은혜를 주신다. 이러한 신앙적 태도는 욥이 깨닫게 된 진리이며, 오늘날 우리도 그 신뢰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따를 때 영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욥기〉42장 5절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인간의 유한함을 깨달으라는 교훈을 제시한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될 때, 비록 고난의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선하신 계획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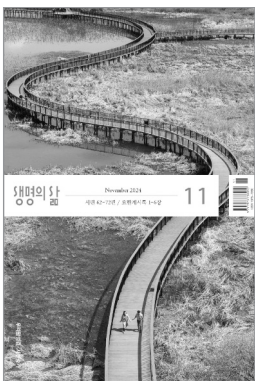


오은규 목사  
(성동광진공동체)

##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 구원을 베푸시는 능력의 하나님

11월 4일~11월 10일  
〈시편〉 65:1~69:12



## 목상포인트

1: 과거 역사에서 하나님이 보이신 능력과 그분이 베푸신 은혜는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승리는 일회적이지 않고, 구원 역사가 최종적으로 완성될 때까지 오늘도 계속된다. 〈시

편〉 기자는 간구를 나의 고백으로 바뀌 읽으며 날마다 우리의 집을 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목상하자.

〈시편〉 65편은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공동체 시다. 〈시편〉 기자는 기도를 들으시며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가까이 오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성도가 의지할 분은 오직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시편〉 기자는 온 땅을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곡식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시편〉 66편은 원수들의 위협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다. 〈시편〉 기자는 온 땅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

라고 권고한다. 그리고는 출애굽 사건을 회상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대한 만민의 찬양을 불러일으킨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믿음과 순종을 단련(연단)하신다. 〈시편〉 기자는 서원을 이행하겠다고 결단하며 하나님을 찬양한다.

〈시편〉 67편은 온 세상이 복을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간구하는 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을 알기를 간구한다. 열방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땅의 소산으로 복을 주시기에 땅의 모든 끝이 그분을 경외할 것이다.

〈시편〉 68편은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시다. 악인은 하나님 앞에서 망하고, 의인은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며 그분 앞에서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요, 과부의 재판장이시며, 가난한 자를 위해 은혜를 준비하시는 분이다. 이방 왕을 흠오시는 전능한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시편〉 기자는 과거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방 세력을 꾸짖으시고 정의를 행하시기를 간구한다. 그는 능력과 위엄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 주실 것을 기대한다.

〈시편〉 69편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는 시로,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종이 드리는 간절한 기도 시다. 〈시편〉 기자

는 고난에 빠진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는다. 재앙과 고난을 연상시키는 ‘물들’, ‘수령’, ‘깊은 물’, ‘큰물’ 등의 단어들 이 서두에 나온다. 그는 억울하게 고통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자신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한다. 그는 하나님의 집을 위한 열성 때문에 자신이 비방당하고 있다고 호소한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우리가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누리는 것들을 기록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자. ▶찬양은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다.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시기 위해 우리를 먼저 변화시키신다.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연단이 무엇이었고, 그 연단이 내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주었는지 돌아보자. ▶〈시편〉 기자처럼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온 세상이 복을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기를 간구하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며 날마다 집을 대신 저 주시는 분이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자. ▶억울하게 고난을 겪거나 사람들에게 외면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 주는 위로를 목상하자.

/ 〈생명의 삶〉 편집부

##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 ‘3040맞춤전도집회’를 위하여!

11월 16일 동작공동체에서 “Story of The Light”를 주제로 30대와 40대를 위한 맞춤전도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0대와 40대분들을 대상으로 지인, 친척, 자녀 등 모든 분을 초대하여 예수님을 전하고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빛인 예수님께서 초대받은 신분의 삶 가운데 빛을 비추어 아들이 물러가고, 그들이 빛 가운데 나오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먼저, 동작공동체가 함께 합심하여 맞춤전도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맞춤전도를 통해 공동체가 하나 되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찬양 공동체가 되도록 하옵소서.

또한, 맞춤전도를 준비하는 기획팀에 하나님이 함께하시어 한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팀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동작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전도 초청 대상자들이 그 사랑을 경험하고 맞춤전도 집회에 참석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마음이 열려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옵소서.

‘3040맞춤전도집회’ 진행의 모든 순서와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님께 하나님이 함께하시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30대와 40대를 위한 맞춤전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김희식 집사(동작공동체)

## 멘토가 멘티에게

## 구별, 선포, 동행

“말씀처럼 선하게 살고 싶지만 가끔은 나쁜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나요?”

이 질문은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겪고 있는 동일한 고민이다.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우리에게 나쁜 마음, 생각이 언제든지 들 수 있다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쓰여있다. 우리의 나쁜 마음과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갈 수 있으나, 머리에 앉아 동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오직 믿음으로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에게도 악한 생각이 끊임없이 유혹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나쁜 마음을 피할 수 없지만, 그 생각을 묵상하고, 머물러 행동으로 이어지는 죄의 패턴을 루터는 없애기를 원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은 모든 결과의 시작점이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도,

열매도 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두 번째로 지금 시대가 소동과 고모라의 시대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다. 근래 다양한 인터넷 매체로 인한 악한 모습과 생각들이 우리 청년들의 생각 속에 수없이 스며들고 있다. 거룩한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성경의 말씀처럼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는 삶이 될 것이다. <잠언> 4장 23절은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붙잡지 못한 유다는 결국 배반과 무질서 방향으로 일생을 마치게 된다. 우리는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시대, 그리고 진리가 실종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쁜 마음과 생각을 그냥 흘려가도록 놔두면 안 된다. 내 안에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 오는 생각인지 아닌지를 먼저 구분해야 한다. 그리고 나쁜 마음과 생각이 우리 안에 있지 못하도록 기

속 우리 삶과 모든 영역에서 흘러가도록 주님과 친밀한 동행의 삶이 필요하다.

<하나님과 동행 연습>이라는 책에 로렌스 형제는 우리에게 유혹과 고난이 가득한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와 연합,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어 하는 열망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나쁜 마음과 생각을 이기는 방법이 아닌가 싶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롬 13:14)는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루를 살아갑니다”라고 선포하자.

이런 선포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매일 걸어가기로 소망한다. 그리고 마틴 루터의 습관처럼 우리도 가끔 새가 머리에 동지를 틀지 않도록 머리를 가끔 좌, 우로 흔들고 살면 좋겠다.



법석훈 멘토  
(대전GLS공동체)

“은혜의 생수가 계속 우리 삶과 모든 영역에서  
흘러가도록 주님과 친밀한 동행의 삶이 필요하다.”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한다. 그러한 환경에 노출을 의식적으로 피해야 하며 우리의 마음을 악한 생각들로부터 지켜야 한다.

세 번째로 우리의 생각을 내버려두면 안 된다. 자연 과학 법칙에 열역학 2법칙이 있다. 그냥 놔두면 자연계도 무질서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법칙이다. 성경에 가롯 유다의 모습을 보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요 13:2).

도하고 선포해야 한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신 것처럼 입술로 대적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을 가만히 두면 변질된다.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정렬하는 반복적인 연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컵 속에 들어있는 작은 이물질을 제거 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깨끗한 물을 계속 부을 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은혜의 생수가 계

##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 부부는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

A 부부는 최근 들어 말싸움하는 빈도가 높아졌다.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일부터 시작해서 사사건건 부부는 부딪혔다. 작은 일에도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소리치며 싸웠다. 돌아보면 그렇게까지 화낼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되기는 하지만 갈등 상황에 처하게 되면 부부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과거의 좋은 관계로 다시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와 버린 느낌이 들었다. 부부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도 하고 싶지 않았다. 이미 서로의 마음이 상할 만큼 상했고 깊은 상처를 입었다. 그렇게 불편하고 괴로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부부는 놀라운 전환점을 맞게 된다.

여느 때처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로 부부는 대치 상태가 됐다. 아내는 그동안 그랬던 것처럼 “그래 싸우자”라는 태도로 남편에게 화를 냈다. 눈은 날카로워졌고 목소리는 격양됐다. 한참을 쏘아붙이면서 아내는 자연스럽게 남편의 격한 반격을 예상했다.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도 않고 평소처럼 화를 내겠네’, ‘여전히 내 마음은 몰라주고 자기변명만 늘어놓겠네!’ 라고 말이다. 그런데 의외의 반전이 일어난다. 그날따라 남편은 그저 듣고만 있었다. 그리고 남편은 한참 후에 몇 마디 중요한 말을 건넸다.

“그래! 미안해! 다음부터는 더 조심할게.”

아내는 순간 당황스러웠다. 그동안 습관처럼 나타났던 남편의 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당연히 같이 화내고, 소리 지르고 고통을 주고 받아야 하는데 남편의 태도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것이다. 싸울 준비를 하던 아내의 마음이 녹기 시작했다. 남편이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고 말했다면 아내도 참지 않고 거친 말로 치고받고 싸웠을 것이다. 그러나 남편의 완전히 다른 태도 변화로 인해서 아내의 서운하고 분했던 마음이 눈 녹듯 녹아버렸다. “미안해”라는 한 마디가 주는 놀라운 변화였다. 큰 노력과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말 한마디로 부부의 관계에 놀라운 변화를 맞게 됐다.

시간이 오래 쌓인 관계에서는 반복되는 관계 방식이 자리를 잡는다. 행동과 대화의 형식에도 마찬가지다. 오랜 시간 함께 생활하다 보면 서로가 익숙한 방식을 찾게 되고 그 방식대로 행동하고 말하려는 경향이 있다. 아무래도 인간은 편하고 익숙한 환경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그 관계 방식이 혹여 불편하고 좋지 않다고 판단하더라도 이미 익숙해졌다면 과거의 그 관계 방식을 사용하려는 습성이 있는 것 같다.

A 부부가 서로 살아가면서 쌓은 관계 방식 중에 두드러진 것은 갈등을 상황에서 참지 않는 것이다. 처음에는 조금이나마 조심하는 태

도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참지 않을 뿐 아니라 서로 하고 싶은 내면의 분노를 거침없이 표출했다. 그리고 그런 대화의 방식이 부부의 대화 방식으로 자리를 잡았다. 갈등 상황이 생기면 화내고 언성을 높여 싸우는 것이 그들만의 방식이었다. 하지만 남편의 변화를 시작으로 부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한다.

갈등의 골이 깊은 부부에게 있어서 “미안해”라는 마음속에서 우리나를 말 한마디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물론 일반적인 사회적 관계라면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어찌면 쉬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운한 감정이 쌓이고 쌓인 관계라고 한다면 미안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무척이나 괴롭고 힘들 것이다. 고통받고 상처받았던 일들만 기억하고 자신 역시 억울한 일을 수없이 당해왔다고 생각하거나 사과를 받아야 할 사람은 오히려 자신이라고 여긴다면 배우자에게 “미안해”라고 말할 수 없다. 부정적인 마음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부부는 서로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다. 부부 관계를 돌아보면서 샘을 해봐도 자신이 더 많이 희생당하고 고통을 당했다고 여겨진다면 미안하다는 표현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부부 관계에서 미안하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손실을 따져보는 계산적 생각을 내려놔야 한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도 잠시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미안하다고 말해야 할 사람은 자신이 아니고 배우자라는 확신이 들더라도 잠시 내려놓고 미안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미안함을 표현하는 것이 패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부부 사이에서는 그래야 한다. 혹시 부부가 사사건건 이기고 지는 것에 몰입해 있다면 서로 한발 물러서는 성숙함이 필요하다. 승자와 패자가 아닌 함께 걸어가야 하는 동반자의 관점으로 서로를 보듬어야 한다. 힘든 길을 함께 걸어갈 때 한 사람이 넘어졌다고 해서 실패자라고 놀리지 않는다. 한 사람이 더 많은 짐을 질 수도 있다. 일으켜 세워주 함께 가야 할 동반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부는 서로 상황에 따라서 자신이 먼저 미안하다는 마음을 표현해야 한다. 사랑한다는 말뿐만 아니라 미안하다는 진심 어린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부부가 되어야 하겠다.



황규복 목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사랑해서 결혼한 당신에게> 저자)

사회선교본부 창립 10주년을 맞으며

# 탈북민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

## 온누리교회 탈북민사역이 나아가야 할 길



이우경 장로  
(한누리사역팀 담당)

2011년 예수제자학교(JDS)에서 간 단동 아웃리치가 나의 탈북민사역의 시작이었다. 초등학교 시절 반공교육을 받으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열심히 불렀던 이후로 북한은 내게는 잊힌 존재였다. 내 삶에서 북한

이 들어올 공간이 없었고, 예수 믿고 나서도 북한은 우선순위에 들어온 적이 없었다.

단동 아웃리치를 위해 북한을 공부하면서 중요한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 철의 장막에 갇혀 있던 북한 주민들이 국경 밖으로 나와야 할 정도로 심각한 흉년이 있었고, 90년 중후반 배급이 끊기면서 아사자가 백만 명 이상 발생한 시기를 북한 정부가 빨치산 투쟁 때 역사를 빗대어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렀다. 평양을 제외한 지역에 배급이 끊기고, 굶어 죽는 사람이 대량 발생하면서 살기 위해서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가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중 소수가 대한민국으로 넘어오고 있었다. 북한으로서는 중국은 우호 국가이고, 대한민국은 적대 국가이기 때문에 탈북했다더라도 중국에 있는 것과 대한민국에 있는 것이 본인에게나 북에 있는 가족들에게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된다. 만일 중국에서 합법적 체류가 가능했다면 대한민국까지 오는 경우가 거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에서도 불법체류자라 일하고도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부지기수였고, 공안에게 적발되면 북한에 끌려가 수용소 생활을 해야 했기에 대한민국에 발을 내디딘 이들이 많았다.

북한의 실상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분단된 이 나라에 통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대한민국에 먼저 온 탈북민들이 ‘통일을 준비시키기 위해 보내진 마중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통일과 통일 이후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과정이 앞으로 우리 민족 앞에 놓인 가장 큰 숙제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그 일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다.

### 탈북민사역, 피할 수 없는 축복의 길

단동 아웃리치 이후 몇 년이 지나서 온누리교회 탈북민 공동체 한터에서 사역하는 분에게 탈북 청년들에게 멘토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다. 그렇게 2017년부터 한터예배에 출석했고, 탈북민들과 함께 주일예배와 순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며 겪는 문제들을 알게 되었다. 탈북민 대학생들의 멘토가 되어달라는 요청에 응할 때만 해도 ‘일대일제자양육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8년 동안 한 명도 하지 못했다. 그



사진은 지난 10월 27일 드린 ‘한누리 연합예배’.

들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두려움, 장벽은 내가 겪어보지 못한 것들이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자기 자신을 보인다는 것은 탈북민들에게 매우 두렵고 힘든 일이다. 매일 아침 노동신문을 독보하며 김 부자의 어묵으로 세뇌된 그들이 그 자리에 하나님을 맞이한다는 것은 얼핏 생각하는 것과 달리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남한 사회에 와서 생계에 대한 염려는 없어졌지만, 그들은 두 나라 사이의 이질적인 문화에 적응해야 했다. 남한 사람들과 비교되는 상대적 가난, 한 번도 접해본 적 없는 외래어와 한자에 대한 적응, 자본주의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학력의 차이(성인의 경우), 최첨단 디지털 환경에 대한 적응, 탈북민에 대한 편견, 건강 문제, 북한과 중국에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연민과 죄책감, 극심한 외로움 등 그들이 겪는 문제가 엄청 많다. 매일매일을 사는 것이 힘든 그들을 예배에 초대하는 것도 어렵고, 신앙이 성숙한 탈북민 성도도 그리 많지 않다. 공동체를 쉽게 떠나고, 신앙생활에 잘 녹아들지 못한다. 탈북민사역을 하면서 보이는 열매가 너무 없어서 힘이 빠졌던 적도 많았다. 그런데 문득 ‘현재 3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국내 탈북민을 섬기기도 이렇게 힘든데 수십만이나 수백만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탈북민들은 통일을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먼저 보내주신 선물이라는 마음이 들었다.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수십 년 살면서 생긴 간격을 인간적인 노력으로 좁힐 수 없다. 탈북민사역을 시작했다가 상처 받고 떠난 남한의 성도들도 많고, 남한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떠난 탈북민도 많다. 탈북민사역은 어려움이 많고, 긴 시간 서로에 대해 배우고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게 있다. 북한과 탈북민 사역은 우리가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문제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과제이자 장래 대한민국에 가장 큰 축복이 될 길이다.

### 온누리 탈북민사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온누리교회는 2002년 북한을 위한 기도모임을 시작했다. 2003년에는 하나공동체를 만들고 탈북민 예배를 국내 최초로 시작했다. 2005년 주선에 교수님의 건의로 양재동에 탈북민 회관을 설립하면서 본격적인 탈북민 사역을 시작했다. 2010년에는 탈북민이 많은 가양동으로 이전하면서 이름을 ‘한터’로 바꿨다. ‘미래홈’이라는 청소년 기숙사를 만들어 이혼 목사님이 숙식을 같이하며 탈북민 아이들을 돌봤다. 탈북민과 남한 성도들이 함께 예배와 순예배를 드리면서 식사하는 공동체를 형성했다. 그 이후 부천과 남양주, 대전캠퍼스에서도 탈북민예배가 시작이 되었다. 2014년에는 탈북민들의 정착을 돕는 기관 하나원에서 사역하는 ‘하나원팀’을 발족했다. 2016년에는 여러 캠퍼스(서빙고 한터, 양재 하나, 부천, 남양주, 대전)와 하나원팀을 하나로 묶어 ‘한누리사역’으로 이름하고, 온누리교회 탈북민사역을 통합했다. 주일뿐 아니라 평일에도 사역할 수 있는 공간인 한터에는 한누리사역을 섬기는 두 분의 간사님이 상주하고 있고, 주일에는 차세대예배도 드리고 있다. 처음에는 탈북민 여성 자립을 위한 공방사역을 지속했다가 2018년 종료하고, 네일아트반을 개설해서 운영했다. 평일에는 차세대를 위한 방과후교실을 열어서 아이들을 돌보고, 독서교실도 운영했다. 지금은 탈북 여성들의 자녀 중에서 중국에서 태어나 한국어가 서툰 아이들을 위한 한국어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말씀으로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일대일 제자 양육 활성화를 준비하던 중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했다. 코로나19는 탈북민사역에도 심각한 영향을 줬다. 2024년 9월까지 입국한 탈북민이 34,259명이고, 현재 국내에서 생활하는 탈북민이 3만 명을 약간 상회한다. 탈북민의 대한민국 입국이 2000년대 초반부터 점점 많아지면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2천 명 대를 유지했고, 그 뒤로 조금씩 감소해서 1천 명 대를 유지했는데, 코로나19로 국경이 봉쇄되면서 급감했다. 2021년 63명, 2022년 67명, 2023년 196명뿐이었다. 최근 약간 증가했지만, 전에 비하면 미미하다.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탈북민이

줄어든 것뿐 아니라 기존의 탈북민들이 비대면 예배가 익숙하지 않아서 대면예배를 지속했던 다른 탈북민 교회로 옮기면서 한터의 탈북민이 줄어들었다. 시간이 지나 대면예배를 시작했을 때 성인예배 인원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절반 이하로 줄어있었다. 감사하게도 그 시기 차세대 예배가 활성화되었고, 성인예배도 조금씩 회복하면서 2024년 한터 단독으로 캄보디아 아웃리치를 차세대와 함께 다녀왔다.

### 탈북민사역의 핵심

탈북민사역을 하면서 항상 부딪히는 문제가 ‘금후’와 ‘영적 양육의 배분’에 대한 것이다. 한국 교회에서 탈북민사역 초기에 예배 출석 대가로 일종의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는 출석 대가로 돈을 주는 경우가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여러 교회에서 탈북민이 교회에 출석하면 현금을 지급한다. 아무래도 그 교회에 탈북민이 많이 모인다. 탈북민들에게 돈은 항상 절박하고, 북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돈을 송금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돈의 유혹을 뿌리치는 게 쉽지 않다. 문제는 호의로 제공하는 돈이 그들이 믿음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믿음, 말씀과 기도의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만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다. 현금이 그 길을 가로막아 버린다면 출석의 대가로 돈을 지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다. 나는 탈북민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서 영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에서 온전히 자립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들이 대한민국의 주력으로 서기를 원한다. 물론 탈북민 자체 중에서 연약한 자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고, 온누리교회도 그런 준비를 항상 하고 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분명히 정립되지 않으면 그들에게 결과적으로 유익이 되지 않는다. 탈북민 사역의 핵심은 그들이 하나님을 깊이 영접하고, 말씀과 기도 훈련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도록 돕는 것이다. 그 일에는 많은 남한 성도들의 조력이 필요하다. 같이 예배드리고, 순예배와 식사 교제를 하고, 그들이 필요할 때 친구가 되어 줄 분들이 필요하다. 탈북민 사역에서 가장 힘든 것이 그 일을 성실히 해줄 남쪽의 사역자들이 부족한 점이다. 북한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이 예배에 와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원한다. 사역이 필요할 때 헌신해 주기를 기대한다. 탈북민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이곳을 통해서 탈북민 지체들과 북한 땅에 복음을 들고 나아갈 많은 사역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한다.

문의: 02-3463-9686(오은철 간사)

## 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이재훈 위임목사, 이인용 장로, 리더십 및 성도 참가

‘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가 지난 10월 27일(일) 시청 앞-광화문 일대에서 열렸다. 온누리교회 이재훈 위임목사, 당회서기 이인용 장로, 교회 리더십과 성도 등도 참가했다.

‘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에서는 정명호 목사(혜성교회)가 사회를 보고, 공동대회장 정성진 목사(거룩한빛광성교회),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 개회사, 김승규 장로(前 법무부장관, 국정원장)가 대표기도 했다. 박한수 목사(제자광성교회), 김양재 목사(우리들교회), 브라이언 채플(미국 장로교회(PCA) 대표)은 ‘동성혼 합법화’, ‘차별금지법’ 등 악법 저지를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다. 영국과



사진은 지난 10월 27일 열린 ‘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기도회’.

독일, 한국 교회 성도들의 간증과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기 위한 천만 기독교인 1027 선언문 낭독, 악법 저지를 위한 기도회도 이어졌다.

김종희 권사(강남B공동체)는 “한

국교회와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악법 저지와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뜻 깊은 자리에 동참하고 싶어서 참석했다”고 말했다.

/ 박지혜, 홍하영 기자

### NGO 더멋진세상, 다지증환자 치료 지원

NGO 더멋진세상과 의료선교시온팀이 모리타니아 다지증 아동(아미나타, 33개월)의 치료를 지원했다. 아미나타의 엄마 마리아마(28세) 미혼모인데, 아미나타와 마리아마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NGO 더멋진세상이 의료 지원을 약속했고, 그 덕분에 아미나타가 손가락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마리아마는 “수술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형편이라 늘 마음이 아팠는데 NGO 더멋진세상 덕분에 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 NGO 더멋진세상 ‘남수단 성탄 선물 캠페인’

NGO 더멋진세상 ‘남수단 성탄 선물 캠페인’ (이하 성탄 선물 캠페인)이 11월 말까지 이어진다. 남수단 케세리교회 주일학교 어린이 200명에게 옷과 학용품 등이 들어있는 선물 패키지를 전달한다. 캠페인 참여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NGO 더멋진세상 홈페이지나 아래 QR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남수단의 성탄절은 연중 가장 큰 행사다. 이 기간 남수단의 어린이들은 새 옷으로 단장하고, 여러 친척과 이웃집을 방문하는 게 전통이다. 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일이다. 성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문의: 02-2271-2248



## 11월 화요성령집회 ‘다시 배우는 기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 본당

11월 화요성령집회가 ‘다시 배우는 기도’를 주제로 막 오른다.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진행된다. 온누리교회 소속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 유튜브 채널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11월 화요성령집회에서는 5일 김

현미 목사 ‘예수님께 배우는 기도’ (요 17:1-5), 12일 이서진 목사 ‘선명한 타겟을 가진 기도’ (막 10:46-52), 19일 최성민 목사 ‘음성에 반응하는 기도’ (삼상 3:1-13), 26일 최성민 목사 ‘소명을 이루는 기도’ (마 26:36-46)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한다.

/ 박지혜 기자

## 오픈 특강 ‘아나운서처럼 말하는 법’

11월 8일 오전 10시 양재 온누리교회 화평홀

두란노어머니학교에서 ‘아나운서처럼 말하는 법’을 주제로 오픈 특강을 개최한다. 전 KBS 이정민 아나운서가 강연한다. 11월 8일(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양재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 진행된다. 참석을 희망하는 성도는 11월 7일(목)까지 하

단 QR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2만 원. 관심이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문의: 02-2182-9114

회비: 더생명나무

우리는행 1005-180-711005

/ 박지혜 기자



## 21기 일.하.세 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11월 2일~23일 오후 1시 온누리청소년센터

21기 일.하.세 아카데미 참가자를 모집한다. 11월 2일(토)부터 11월 23일(토)까지 4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온누리청소년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일.하.세 아카데미는 일터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

다. 성경적 직업관, 성경적 성공관, 성경적 재물관, 성경적 문화관, 그리스도인의 대인관계, 일터신앙 등을 주제로 강의와 조별 나눔 등을 한다. 신청은 아이스쿨이나 QR코드로 하면 된다.

회비는 5만 원.

문의: 010-3488-5382



## 열린다성경 스터디투어 참가자 모집

열린다성경 스터디투어 독일편 참가자를 모집한다. 2025년 1월 25일(토)부터 2월 4일(화)까지 11박 12일 ‘루터의 생애’를 주제로 독일을

일주한다. 열린다성경 스터디투어는 매일 교회사와 세계사를 공부하고, 현장 답사도 한다.

문의: 010-4902-1022

## 행복한 우리 마을 이야기!

온누리지역아동센터, ‘제32회 글그림잔치’ 수상

(사)부스르기사랑나눔회가 주최한 ‘제32회 글그림잔치’에서 온누리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들이 ‘기발한 작품상’ (본상)과 ‘더불어함께상’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1,400여 점의 작품을 출품했다. 80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온누리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들은 ‘행복한 우리 마을 이야

기’를 주제로 작품을 선보였다.

온누리지역아동센터는 안산 온누리M센터 1층에 위치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정 등 이주민 자녀들에게 한국어, 영어, 수학 등을 지도하며, 미술과 체육 등 예체능 활동, 영어 캠프, 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 CGN 운영위원장 이취임예배

11월 9일 오전 6시30분 온누리청소년센터 3층

CGN 운영위원장 이취임예배를 11월 9일(토) 오전 6시 30분 온누리청소년센터 3층 드림홀에서 드린다. 12년 동안 제3대 운영위원장으로 헌신한 정상건 장로가 이임하고, 제4대 운영위원장으로 신철우 장로가 취임한다.

## 2024 차세대 독후감 대회

12월 1일까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독후감

온누리교회 도서관에서 ‘2024 차세대 독후감 대회’를 개최한다. 12월 1일(일)까지 부모와 차세대가 함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읽고,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고민해 보고, 그 내용을 독후감으로 써서 온누리교회 도서관(온누리청소년센터 3층 도서관)에 제출하면 된다.

온누리교회 차세대 꿈이자라는땅(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소속 어린이가 대상이다. 독후감 분량은 200자 원고지 유년부 3장 이상, 초등부 5장 이상, 소년부 7장 이상이다. 12월 22일 시상식을 할 예정이다.

문의: 02-3215-3110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 11월부터 연말까지 ‘열린순예배’

온누리교회 모든 순에서 기획 및 실행

전도사역본부와 공동체사역본부가 함께 아주 특별한 전도의 장(場)을 마련했다. 11월부터 연말까지 온누리교회 모든 순에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을 주제로 ‘열린순예배’를 드린다.

열린순예배에는 그동안 여러 사정으로 순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나 기도해 오던 전도대상자

를 초대하면 된다. 전도대상자들이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를 맛보도록 돕는 전도 현장이다. 연말까지 각 순에서 ‘열린순예배’를 기획하고 실행하면 된다. 열린순예배 장소는 가정이나 카페, 영화관, 음식점 등 어디든 자유롭게 선정하면 된다.

/ 홍하영 기자

## 탁구인 맞춤형전도집회 ‘핑퐁 in Love’

12월 14일 오후 2시 온누리청소년센터 체육관

2024 탁구인 맞춤형전도집회 ‘핑퐁 in Love’가 오는 12월 14일(토) 오후 2시 온누리청소년센터 체육관(지하 1층)에서 열린다. 1부 탁구대회(오후 2시~5시 30분), 2부 식사 및 토크쇼(오후 6시~8시)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참가를 원하는 성도들은 하단 QR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

출하면 된다. ‘핑퐁 in Love’에서는 여성진 목사(전도사역본부장)가 설교하고, 양영자 선교사(88년 서울올림픽 탁구복식 금메달리스트, 가수 이무송, 색소폰 연주가 심상중, 가수 하다쉬 뮤지션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문의: 010-3772-3686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우측 QR코드를 찍으면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전도콜센터 수료 간증



/ 이규민 집사(한강공동체)

예수님 닮은 섬김을 보았다!

한강공동체와 전도콜센터가 협력해서 ‘개인맞춤전도’를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뻐다. 2022년 지인을 공동체 맞춤 전도집회에 초청했는데 결신을 보류해서 아쉬웠는데 개인맞춤전도는 더욱 친밀하고 촘촘한 전도가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초청한 지인은 모태신앙을 가지고 비신자와 결혼한 자매님이었다. 주말에 남편이 골프를 치러 가면 세 아이와 먼 친정에 가서 모교회 예배를 드리는 귀한 자매님이다. 이 춘동에 거주하면서 왜 멀리까지 가냐며 온누리교회 새가족 모임 시간을 알려줬는데 흐지부지되곤 했다. 이미 예수님을 섬기는 신실한 자매님이기에 전도대상자로 초대해도 되는지 잠시 망설여졌지만, 그가 믿음의 공동체에 잘 정착하도록 전도콜센터에서 함께 힘써주시고, 기도해 줄 거라는 마음에 신청했다.

나의 망설임이 무색하게도 이성미 권사님이 전도대상자를 위한 완벽한 맞춤 전도를 해주셨다. 그 자매님에게 죄 용서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이 있음을 확인하시고, 남편과 아이들의 구원을 위한 구체적인 조언을 해주셨다. 첫째, 남편과 시부모님을 잘 섬기되 더욱 절실한 마

음으로 기도하고 솔직하게 소통할 것, 둘째, 자매님이 속히 온누리교회에 등록해 세 아이의 신앙이 주일학교에서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라고 권면하셨다. 자매님의 영적, 환경적 상황의 어려움을 아시고 10일 뒤 재방문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다고 하셨다. 친정어머니처럼 다정하게, 그러나 꼭 필요한 말씀을 강단 있게 해주셨다. 그 말씀이 권사님의 간증과 더불어 큰 울림이 있었다. 남편과 시댁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아이들을 직접 만날 의향이 있다며 주일학교로의 연결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하셨다. 그 자매님은 권사님이 기도해주시고, 실질적인 도움까지 주신다니 정말 감사하고 큰 힘을 얻었다고 했다. 그 자매님이 온누리교회 새가족 모임 1주차를 완료했다.

전도콜센터에서 예수님 닮은 섬김을 보았다. 한 영혼을 위한 섬김에는 반드시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따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하나님께 열까지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전도콜센터 리더십과 공동체 전도사역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기를 기도한다.

새가족 수료 간증



/ 오형석 성도(성북공동체)

슬픔의 눈물이 은혜의 눈물로!

나는 불교 신앙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배우자도 불교 신앙이 배경인 가정에서 자랐다. 40세가 넘도록 기독교와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았다. 그런데 직장 동료에게 기독교 서적을 선물 받고 읽으면서 마음에 큰 혼란이 생겼다. 내가 교회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 일을 계기로 교회를 찾고, 성경 읽기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은혜를 입었다. 아내도 함께 교회를 다니며 같은 신앙을 갖는 큰 기쁨이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우리 부부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셨다. 가정에 큰 분란과 어려움이 발생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청계천과 한강 공원을 걸으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다. 슬픔의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렸다. 3년이 다 되어도 그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 우리 부부는 어머니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나도 교회 예배에 참석해보고 싶다”는 말지 못할 말씀을 하셨다.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를 다녔다. 그런데 출석하던 교회의 찬양과 예배가 너무 젊은 분위기여서 어머니가 쉽게 적응하지 못하셨다. 그래서 어

머니를 위한 교회를 찾았고, 올해 4월 온누리교회를 방문했다. 어머니가 온누리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에 또 오고 싶다고 하셨다. 두 달 정도 계속 모시고 다녔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가 새가족 교육을 시작하셨다. 나도 새가족 교육과 일대일제자양육을 받기로 결심했다.

어머니는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인생이 더 행복했겠다”, “예배 말씀과 기도가 너무 좋네”라는 말씀을 자주 하신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한강 공원에서 흘렸던 슬픔의 눈물이 이제는 은혜의 눈물이 되어 눈가에 흐른다. 하나님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정말 기쁘고 감사할 따름이다. 어머니에게 신앙을 허락해주시는 하나님, 어머니를 통해 온누리교회를 찾게 해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온누리교회에서 어머니가 신앙을 갖게 되면서 우리 가정에 놀라운 평강과 행복이 찾아왔다. 나에게는 일대일제자양육을 통해 교회의 정체성, QT와 순예배의 중요성,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깊이 이해하는 큰 은혜가 있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린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성도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다.

양재 이웃사랑팀 간증



/ 서광열 팀장(양재 이웃사랑팀)

마법의 지팡이, 어둠을 물리치다!

양재 이웃사랑팀이 섬기는 기관 중에 가정폭력 피해 가족들이 웅기종기 모여 거주하고 쉬는 공간이 있다. 그 마을 이름이 ‘누리봄’이다. 누리봄에서 사르밈 프로젝트를 통해 보낸 ‘감사의 쌀’을 받고 정말 감사하다는 손편지를 보내왔다. 그 편지에 대한 보답으로 양재 이웃사랑팀이 누리봄을 방문했다.

누리봄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그 자녀들의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자립을 돕는 기관이다. 아이들과 어머니들이 누리봄에서 안전한 삶을 꿈꾸고, 서로를 의지하며 자립을 위해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다. 누리봄을 방문한 양재 이웃사랑 팀원들이 우리나라 가정폭력 피해 현황을 듣고 깜짝 놀랐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속삭여주고 위로했다. 누리봄은 하나님의 사랑과 기도가 필요한 곳이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역이라고 모두 합심한 듯 이야기했다.

누리봄에서는 아이들의 심리치료 일환으로 치유의 글쓰기를 하고 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동화로 쓰면서 내면의 치유도 하고, 동화 작가로 등단도 하는 ‘꼬마작가 프로젝트

’를 시행하고 있다. 아이들이 동화를 쓰면서 자신을 위로하고, 아픔을 겪은 엄마의 마음에 공감하며,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 같은 처지의 친구를 돕고자 하는 씩씩한 마음을 키우고 있다. 그 작품을 전시하는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간을 찾지 못했는데 온누리교회와 연결됐다. 그 덕에 지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온누리청소년센터에서 ‘마법의 지팡이, 어둠을 물리치다!’를 주제로 전시회를 열었다. 아이들의 소망과 기대가 가득한 멋지고 사랑스러운 동화책을 선보였다. 행사 당일 판매한 굿즈(goods, 어떤 작품과 관련한 기획 상품)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보증금과 생활용품 구입, 심리치료비와 꼬마작가 장학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 주제처럼 마법의 지팡이 같은 하나님 사랑의 손길이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삶에 드리운 어둠을 모두 몰아내기를 소망한다. 아이들이 빛 되신 하나님을 만나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 속으로 성큼성큼 나아가기를 기도한다.

문의: 02-888-7983

블레스ing 교토&오사카 콘서트 간증



/ 이수민 팀장(블레스ing 교토&오사카 연합아웃리치팀)

하나님의 짝사랑, 그 순애보

교회로 향하는 100번 버스 안에서 바라본 차창 너머의 햇살은 얼마나 맑고 투명한지, 이처럼 아름답고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분명 하나님의 선물이라. 용서받은 죄인인 내가 누리는 이 아름답고 영롱한 햇살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본 교토와 오사카 사람들도 똑같이 누리고 있겠지? 하나님은 믿는 우리나라 믿지 않는 교토와 오사카의 일본인을 똑같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데다.

지난 10월 13일 찬양사역공동체 소속 100명 가까운 식구들이 일본 교토에서 블레스ing 교토 콘서트를 진행했다. 찬양사역공동체, 주사랑, 찬양사역팀, 위십과이어, 2부 주사랑챔버, 온사랑합창단까지 5개팀이 연합했다.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분들이다. 블레스ing교토&오사카 콘서트를 준비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교토와 오사카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시면 저 귀한분들이 이토록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귀하게 사용하신 바울도 39번씩 맞는 태형을 다섯번이나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로 맞고, 몇 차례 죽을 고비를 겪으

며 하나님의 짝사랑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그 사랑을 전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의미를 잘 알고 있었기에 그토록 극심한 고통을 이겨내며 그 사랑을 전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짝사랑에는 반향이 매우 적다. 일본의 복음화율이 1%가 안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면 어떠하랴. 하나님의 짝사랑, 하나님의 순애보는 더 깊어지지만 할테니 바울이 그랬듯이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러브소나타를 묵청이 터지도록, 창자가 저리도록 끝없이 부르며 될 일이었다. 비록 금번 아웃리치에서 우리가 일본인과 일본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짝사랑, 눈물의 깊이를 다 이해하고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짝사랑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러브소나타를 계속 부를 것을 다짐하며 돌아왔다. 어느덧 저 멀리 붉은 벽돌 사이로 온누리교회의 푸르른 명패가 보인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러브소나타를 죽는 날까지 부르는 ‘온누리교회’.

서빙고 02.79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2부 오전 11:00 분당  
3부 오후 1:00 분당 4부 오후 3: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비전홀  
3부 오전 11:30 분당, 비전홀, 두란노홀  
4부 오후 1:50 분당, 비전홀  
5부 오후 4:00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분당 2부 오전 6:30 비전홀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2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열방예배**  
매주 목요일 오후 7:20 두란노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시아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시간: 매주일 오전 11:20  
장소: 선교관 믿음홀  
담당: 오은규 목사  
문의: 010-5766-4462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2:00 두란노홀  
문의: 이지은 대표(010-8741-3077)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사랑홀  
**Love My Life 예배(사별자모임)**  
비대면모임: 매주 화 오후 7:30-8:30(Zoom)  
대면모임: 매주 토 오전 11:00~오후 2:00  
문의: 김희연 총무(010-3204-3815)  
**문화 미디어 홍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홀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청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사랑홀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홀  
문의: 김한식 팀장(010-3597-7152)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일본어예배부(02-3215-3702)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B1 시온홀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0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 온누리M미션**  
네팔어예배 14:00 선교관 202호 / 러시아어  
예배 12:00 신동아 2층 화평홀 / 몽골어예  
배 14:00 선교관 믿음홀 / 아랍어예배  
14:00 본관 B102호(매달 첫 주만 선교관  
202호) / 페르시아어예배 13:00 온누리청  
소년문화센터 4층 강의실1  
**인천 온누리M미션**  
모자이크예배 14:00 3층 소망홀  
**안산M센터**  
네팔어예배 10:00 303호 / 러시아어예배  
10:00 지하 Onnuri Hall / 몽골어예배  
10:30 201호 / 미얀마어예배 10:30 202호 /  
베트남어예배 10:30 301호 / 아랍어예배  
12:00 2층 Library / ANEWS예배 1부 9:00,  
2부 11:00 4층 Manna Hall / 우즈베키스탄  
어예배 14:00 301호 / 인도네시아어예배  
16:00 3층 Startree / 중국(청장년)예배  
11:00 4층 Manna Hall / 캄보디아어예배  
10:00 302호 / 태국어예배 14:00 4층  
Manna Hall / 필리핀어예배 14:00 지하  
Onnuri Hall / 대학청년부 12:30 302호 /  
다문화 파워웨이브 11:00 305호 / 다문화  
꿈팡 11:00 1층 Star Tree Academy / 다문  
화 예꿈 11:00 지하 Dream Kids Room  
**김포M센터**  
러시아어예배 14:00 703호 / 몽골어예배  
17:00 706호 / 미얀마어예배 11:00 706호 /  
캄보디아어예배 11:00 703호 / 다문화 파워  
웨이브 토요주일 14:00 703호 / 다문화 꿈  
팡 11:00 705호  
**군산M센터**  
ANEWS예배 11:00 101호 / 다문화 차세대  
예배 11:00 102호  
**남양주M센터**  
네팔어예배 토요주일 20:00 304호 / ANEWS  
예배 11:00 301호 / 캄보디아어예배 11:00  
304호 / 힌디어예배 토요주일 20:00 301호 /  
다문화 차세대 예배 13:00 306호  
**서산M센터**  
ANEWS예배 11:30 비전홀  
**평택M센터**  
몽골어예배 11:00 2층 분당 / ANEWS예배  
13:30 4층 열방홀 / 파워웨이브 11:00 4층 열  
방홀 / 다문화 꿈팡 11:00 2층 차세대예배실  
**화성M센터**  
네팔어예배 11:00 202호 / 캄보디아어예배  
10:00 301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오후 4시 / 신관 누리를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수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수요일 오전 9:30-10:20  
장소: 서빙고 콘서트홀, 양재 온유홀  
문의: 서빙고(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를 운행**  
시간제출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  
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서빙고 대청어머니기도모임**  
대학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본관 B102호  
문의: 010-3003-5910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  
쪽방촌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 주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9-3  
문의: 010-2495-2319  
**군선교 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선교관 101호  
문의: 군선교팀(02-3215-3214)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님 환영  
**BEE 선교 기도모임**  
대상: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선교 사역  
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  
일시: 매주 토요일 6:30-8:00  
장소: 서빙고온누리교회 한동홀  
문의: 010-5250-1233

**CMN 라파팀 외국인 진료 의료진 모집**  
일시: 매월 넷째 주일 오후 4시-6시  
분야: 내과, 가정의학과, 치과, 간호사  
장소: 서빙고 선교관 B1 라파진료실  
문의: 박귀홍 팀장(010-9990-2875)

**TP44기 단기선교사 훈련생 모집**  
기간: 12월 30일~2025년 1월 24일  
장소: Acts29비전빌리지  
접수: www.visionvillage.org  
마감: 11월 29일까지  
문의: 031-331-8188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양재 02.57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주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시아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조 기쁨홀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쁨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  
로 드리는 예배)**  
Jesus Vine 중등1~고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어1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1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고등부: 교육관 온유홀(A동 2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영어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2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도곡교육관 주일 10: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영어 차세대예배**  
Youth Service 11:00 도곡1교육관 온유홀  
Kidzone 10:30 도곡2교육관 기쁨홀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4:00 예배(청년부)**  
갈렙청년부 도곡1관 기쁨홀  
**사랑부 예배**  
**1부예배(사랑부)**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비전홀B  
문의: 이은일 목사(010-3646-7994)  
**2부예배(예수사랑부)** 오전 11:20(발달  
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Samuel Hatangimana  
Maxime Szustak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9560-0059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김종균 목사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053-2179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JD홀  
**마리아행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러방랜드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BEE 선교 기도모임**  
대상: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선교 사역  
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  
일시: 매주 토요일 6:50-9:00  
장소: 양재온누리교회 비전홀B  
문의: 010-6422-8376

**CMN 토보팀 의료진 모집**  
일시: 매월 두번째 주일 오후  
장소: 김포M센터(이주민, 난민 의료지  
원)  
분야: 치과의사, 치위생사  
문의: 윤상엽 팀장(010-9439-1180)

**CMN 시온팀 의료진 모집**  
모집: 치과(사역 시작 9월)  
내용: 매월 넷째 주일 안산M센터  
의료사역  
문의: 이백균 팀장(010-3388-5331)

**CMN 마노아팀 의료진 모집**  
일시: 10월, 11월 셋째 주일 오후  
\*11월 17일 평택 인도네시아 예배  
분야: 산부인과 진료(여의사) 1명  
문의: 류기선 팀장(010-2468-2755, 문  
자 먼저 연락)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 모집**  
대상: 초1~중1(타캠퍼스, 타교인 지원  
가능)  
연습: 매주 토요일 오후 1~4시, 첫째·셋  
째 일요일 오후 1시 30분-3시  
장소: 서빙고 온누리청소년수련관 청소  
년프로그램실(3층)  
지휘: 최영은 성가사  
문의: 김미현 010-8285-6435

부천 032.322.9686

**토요주일예배** 9: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2:00 / 4부(대학청년) 4:00/  
5부 7:00(온라인)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분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어1부 9:00, 영어2부 11:30 / 유치1부 9:00, 유치2부  
11:30/ 유년1부 9:00, 유년2부 11:30 / 초등1부 9:00 / 초  
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년2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한사랑예배(탈북민)**  
주일 오후 2:00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인)**  
주일 오전 11:30 꿈아이홀  
**중국어예배** 오후 2:00 두란노홀

평택 031.651.9680

**토요주일예배**  
10:2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분당 / 2부 11:25 분당 / 3부 14:05 분당  
**대학청년(주일)** 16:00 분당  
**영어예배(주일)** 14:10 301호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기도모임 매주 수 13:30 301호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분당  
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주 수 오후 8:00 분당  
**차세대예배**  
영어부 11:30 4층 영어부 예배실 / 유치부 11:30 3층 예  
꿈 예배실 / 초등부 9:00 3층 예꿈 예배실 / 유년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파워웨  
이브 예배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분당

수원 031.895.6500

**토요주일예배**  
토요주일예배, 예꿈놀이학교, 사이닝즈, 아와나 10:00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찬양예배 14:00  
**대학청년(주일)**  
오후 2시 비전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주일 차세대예배**  
영어부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9:00, 11:30 조이  
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 11:30  
믿음홀 / 초등부 9:00, 11:30 대광빌딩 4층 / 소년부  
9:00, 11:30 사랑홀 / 중등부 9:00, 11:30 비전홀 / 고  
등부 9:00 경찬홀 / 영어예배 차세대 11:30 경찬홀

인천 032.437.9686

**토요주일예배**  
10: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3:50  
**대학청년** 16:00 분당  
**차세대예배**  
영어부 9:00, 11:30 사이닝홀 / 유아부 9:00, 11:30 누리홀 /  
유치부 9:00, 11:30 꿈아이홀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소년부 9:00, 11:30 믿음홀 / 파  
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예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9:00, 11:30 사랑홀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4:00 소망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2층 분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2층 분당

대전 042.825.3642

**토요주일예배**  
10:00 분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  
**일요주일예배**  
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예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 세종교육관  
분당 1부 9:00 / 2부 11:30 / 3부 14:30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5:20 분당 / 6:00 세종교육관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00 분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19:30 분당  
**주일 차세대예배**  
예꿈1부 9:00 302호 / 세종교육관예꿈 11:30 407호 / 영  
아부 11:30 301호 / 유치부 11:30 302호 / 꿈팡1부 9:00  
304호 / 세종교육관 유년부 11:30 402호 / 세종교육관 소  
년부 11:30 411호 / 유년부 11:30 304호 / 초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등부 11:30 누리홀 / 고  
등부 9:00 누리홀 / 세종교육관파워웨이브 9:00 402호

강동 02.475.9686

**토요주일예배**  
10:3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프라미스(분당),  
프라미스U(사랑홀))  
**차세대예배**  
예수님의 꿈아이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사랑홀 / 초등부 11:30 드림홀 / 중고등부 9:00 사  
랑홀  
**장애인예배**  
사랑부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분당  
금요기도집회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20:00 분당  
**새벽예배** 오전 6:20 분당

남양주 031.515.3521

**토요가족예배** 10:30 B2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09:00 B2 분당 / 2부 11:30 B2  
분당 / 3부(대학청년) 16:00 B2 분당 행복한하나예  
배(탈북민) 11:00 B1 소예배실  
**외국어예배** 중국어예배 14:00 B1 소예배실 / 힌디  
어예배 토요일 19:00 남양주M센터 301호 / 네팔어예  
배 토요일 19:00 남양주M센터 301호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B2 분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B2 분당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B2 분당  
**차세대예배** 영어부 11:30 3F 꿈아이홀 / 유치부  
11:30 3F 꿈이툼홀 / 유년부 11:30 2F 드림홀 / 초등  
부 11:30 4F 비전홀 / 중등부 11:30 교육관 3F 믿음  
홀 / 고등부 11:30 교육관 3F 소망홀

양지 031.331.8171

**토요주일예배** 9: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YJ대학  
청년) 14:30  
**차세대예배** 영어부 11:30 드림씨드홀 / 유아  
부·유치부 11:30 위더슨홀 / 유년부 11:30 아펜  
젤라홀 / 초등부 11:30 길보튼홀 / 중등부·고등  
부 11:30 박도세홀  
**주일기도모임** 예배중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퍼스  
**주중예배** 수요오전예배 10:30 박도세홀/ 금요  
성령집회 21:00 시안홀(7~8월)  
**새벽예배** 월~금 6:00 시안홀

영종 032.752.7937

**토요주일예배** 10:30 3층 백향목홀  
**일요주일예배** 1부 9:00, 2부 11:30 백향목홀(3층), 대학청년예배  
14:30 언더우드홀(2층)  
**새벽예배** 월~금 6:00 백향목홀(3층)  
**차세대예배** 파워웨이브(중고등부) 14:30 백향목홀(3층), 꿈팡(초등부)  
11:30 알렐루(2층), 꿈팡(유년부) 11:30 언더우드홀(2층), 예꿈(유치부)  
11:30 아펜젤라홀(2층)  
**수요여성예배** 10:30 백향목홀(3층)



# 빙하의일각

성경과 과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바라보는 '빙하시대'

## \*로드트립\*



빙하시대의 흔적들을 눈으로 보고,  
발로 걸으며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섭리를 발견하는  
창조과학탐사여행

출연: 이재만, 박시은, 진태현

CGN 유튜브, **풍영** 전편 공개 완료!



## \*야외수업\*



빙하시대의 증거를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를 변증하고 창조의 섭리를  
시각적, 이성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이재만 선교사의 현장강의

출연: 이재만

매주 금요일 **풍영**에서 만나보세요!  
(1~5편 공개 완료)

